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연구 (1)

– 고성 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

A Case Study on the Landscape Design in Hanok-Village (1)

– Wanggok Village, Moosum Village, Village of Nampyeong Mun Clan –

심경미 Sim, Kyung Mi

김꽃송이 Kim, Kot Song I

(a u r i

AURI-한옥-2014-3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연구(1)
-고성 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A Case Study on the Landscape Design in Hanok-Village(1)
-Wanggok Village, Moosum Village, Village of Nampyeong Mun Clan-

지은이: 심경미, 김꽃송이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05호

인쇄: 2014년 12월 26일, 발행: 2014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6,000원, ISBN: 979-11-5659-033-0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Ⅰ 연구책임	심경미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김꽃송이 연구원
Ⅰ 연구보조원	노효정
Ⅰ 외부연구진	김철현 경민대학교 교수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

Ⅰ 연구자문위원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김도경 강원대학교 교수 이경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최근 한옥마을의 역사성과 공간설계논리를 고려하지 않은 마을복원사업으로 인해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옛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한옥마을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관광지화되어 그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한옥마을의 올바른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마을의 원형경관을 파악하고 마을의 전통성과 향토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마을 경관 형성의 주요 거점이 되는 전통가옥뿐만 아니라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한옥마을의 경관영역으로 확대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거주자들의 역사·문화가 반영된 아름다운 전통 한옥마을 경관의 특성을 현 시점에서 발굴기록하여 홍보하고, 전통 한옥마을 경관에 대한 조명과 이해를 통해 선조들의 경관설계논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은 한옥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우수한 경관을 간직하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총 8개의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 가운데 고성 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3곳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제2장. 조사대상 한옥마을 선정 및 추진과정

분석대상 한옥마을은 전통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 중 비교적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선정하여, 전통 한옥마을 경관의 우수함과 보존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마을 사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대중적으로 사진정보가 많이 확보된

마을을 선별하였으며, 한옥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옥마을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고성 왕곡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네 개의 마을을 후보로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현재 담장 등의 경관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성주 한개마을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옥마을 우수경관 계획요소를 발굴분석하기 위해 대상별 한옥마을 경관 관련 시각자료를 수집·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마을 경관 유형을 고려하여 마을별 역사적 특징과 공간설계논리가 잘 나타난 사진을 수집하였으며, 마을 내 문화재급 한옥 또는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 개별한옥의 디테일 사진도 함께 수집하였다. 시각자료는 우수한 경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진작가가 보유한 자료의 구득을 통해 우수한 자료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 시점에서 마을의 우수경관을 발굴·기록할 수 있도록 오래된 모습보다는 가급적 최근의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시각자료는 연구진이 별도로 추가 촬영하였다. 본 연구에 실린 시각자료는 마을별 다양하고 우수한 경관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제3장.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고성 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세 개의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역사 및 현황, 풍수지리학적 입지, 주거 특징 등 기본이력사항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한옥마을의 우수경관 계획요소를 분석하였다.

□ 고성 왕곡마을

왕곡마을은 마을을 두르는 산들로 겹겹의 영역이 형성되고 그 안에 거주지가 안전하게 숨겨진 환경조건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풍수지리적 입지는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왕곡마을은 이처럼 자연재해와 근현대기의 개발에서 비껴남으로써 삶의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마을이 되었다.

왕곡마을 집들의 특색은 집 앞 마당에 담을 두르지 않고 대문이 없다는 점,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마구(외양간)가 서로 별도의 채로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몸채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채 앞에 툇마루가 없고 문이 기단 위로 높이 설치되어서 그리로 드나들

지 않으며, 정지(부엌)를 통해 다른 방과 집밖을 연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후를 반영한 주거형태로부터 비롯된다. 왕곡마을의 집들은 모두 겹집으로, 외피면적이 작아 열손실이 적다. 대부분의 집들은 일자형 본체에 마구를 직각방향으로 덧붙인 ㄱ자형 집인데, 돌출된 마구 부분은 북서쪽, 즉 집 앞에서 보아 왼쪽에 있는 가옥이 많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겨울철 태양열을 더 많이 획득하고 북서풍을 차단할 수 있어 에너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돌출 부분을 오른쪽에 둔 집들은 대개 안길의 남서쪽에 있는데, 돌출 부분으로 안길 쪽을 막아 앞마당을 좀 더 아늑하게 만들었다.

앞마당이 담과 대문이 없어 개방적인데 반해 본채 후면의 뒷마당은 담이 높이 둘러 폐쇄적인 마당을 이루고 있는 점 역시 다른 마을의 주거와 차별화 되며, 모두 조금씩 다르고 각기 특색이 있다. 조형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굴뚝 역시 왕곡마을의 특징적인 경관이다. 폐쇄적인 높은 뒷담은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주고 바깥의 마을길로 뒷마당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며, 높은 굴뚝은 마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굴뚝으로 바람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 영주 무섬마을

무섬마을은 다른 전통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무섬마을은 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넓은 강과 접해있고 강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의 형상을 이룬다. 강과 접해있는 대지는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 뒤편으로는 자연구릉지가 발달하여 마을은 풍수지리학적 측면에서 행주형국을 이룬다. 이러한 자연환경 및 입지조건으로 인해 마을에서 주거지는 서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한다. 현재는 수도교라는 현대식 다리가 놓여 있으나 과거에는 냇가에 나무기둥을 박은 외나무다리가 육지와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외나무다리는 고향에 대한 정취와 애환 어린 추억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무섬마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마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무섬마을 가옥은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하던 까치구멍집이 평지에 적응하면서 변모하여온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마루를 짧게 하고 좌우 끝의 짚이 안으로 들어가 까치가 드나들만한 구멍을 낸 까치구멍집은 폐쇄적인 겹집에서 나타나는 양식으로, 열손실을 줄이고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 가옥 안에 모든 생활공간이 집중되며 특히, 마구와 부엌이 가옥 안에 배치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까치구멍집과는 달리

무섬마을의 까치구멍집은 가옥에 텃마루를 두어 시원한 개방감을 주거나 마구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사랑방이 자리하는 등 산간지역의 까치구멍집이 평지의 개방적인 초가와 만나 변형된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무섬마을의 가옥에는 격식 있는 사대부가옥의 전형적인 공간구조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섬마을의 가옥은 외부에서 사랑채와 안채로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고 사랑채가 부속실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분리되거나 가옥에서 돌출되어 있으며, 사랑방은 조망에 유리한 배치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이 무섬마을의 가옥에는 유교적 격식이 반영된 공간구조가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은 무섬마을의 입향조인 박수(1641~1699)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지은 만죽재 고택과 고종 의금부도사를 지낸 김낙풍 선생(1825~1900)이 지은 해우당 고택에 잘 반영되어 있다.

□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1940년경, 9채의 살림집과 재실(광거당), 정사(수봉정사), 문고(인수문고) 등이 건립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역사는 19세기 초반 문익점의 18대 손으로 올라가 1834년 지금의 광거당 자리에 용호재를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마을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전법에 따라 집터가 구획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실, 가옥, 마을안길 등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광거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정전법에 따른 격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처음부터 계획된 구역에 따라 가옥들이 자리하였다. 격자형 공간구조로 마을의 진입로와 광거당을 향한 길을 제외한 마을 안길이 모두 곧은 형상을 하고 있다. 마을의 주거는 서로 연결하여 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담장은 굴곡이 거의 없는 직선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높다. 낮은 토담이나 자연스러운 골목길을 따라 곡선을 이루고 있는 전통한옥마을의 담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마을 내 가옥의 구성은 상류주택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부분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존재하며 아래채가 부속되어 있는 가옥도 있다. 사랑채는 위계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으며, 앞뒤 두 줄로 배열되기도 한다. 대체로 안채는 북쪽에 치우쳐 배치되고 사랑채는 남쪽에 넓은 사랑마당을 두고 자리함으로써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보편적인 마당구성을 하고 있다.

한편 앞의 두 마을과 달리 남평문씨본리세거지에는 마을의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는 수봉정사(수백당)와 광거당, 인수문고가 있는데, 이들은 마을의 대표적인 건축물들로 자연과 어우러져 매우 뛰어난 경관을 창출한다. 수봉정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이며, 문중의 자제들이 학문과 교양을 쌓던 수양장소였던 광거당은 용호재를 헐고 옛 터를 살려 정남향으로 지은 재실이고, 인수문고는 약 8,500여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는 문중문고이다. 특히 수봉정사와 광거당은 건물 본체와 담장, 화방벽 등 조형적인 측면이 매우 아름다우며 안마당과 주변의 노송 등 자연과의 조화도 뛰어나 절경을 이룬다.

이처럼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마을의 조성시기와 규모, 배치방법 등에서 기존의 전통마을과는 차별화되는 특징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에 적용된 근대적 변화양상을 잘 보여준다.

제4장. 연구의 요약 및 의의

한옥은 근래에 친환경건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한옥마을은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공간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에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특성을 연구하고, 한옥마을이 가지는 특성을 현대의 주거지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아름다운 전통한옥마을의 경관을 자연경관까지 확대하여 현 시점에서 한옥마을 경관의 특성을 발굴기록하고, 경관설계논리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전통한옥마을의 우수한 경관과 가치를 토대로 올바른 복원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앞으로 변화할 한옥마을의 경관을 기록하고 우수한 경관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전통한옥마을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감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한옥마을 가운데 3곳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한개마을을 포함한 나머지 중요민속문화재 전통한옥마을을 대상으로도 같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관의 변화를 관리기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동일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 전통한

옥마을,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도심 속 한옥마을, 더 나아가 최근에 조성한 신규한옥마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마을의 원형경관 및 우수한 경관을 발굴기록하고 설계논리를 고찰하는 연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한옥마을 조성 및 경관관리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과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경관자료 구득에 있어 예산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사계절의 다양한 우수한 경관자료를 구득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전통한옥마을의 우수한 경관을 발굴기록분석한 첫 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다양한 유형의 한옥마을 경관관리 정책과 신규한옥마을 조성정책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전통한옥마을의 우수한 경관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 한옥마을, 마을경관, 고성 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2
3. 연구의 흐름	4
제2장 한옥마을 선정 및 추진과정	5
1. 한옥마을 경관의 개념 및 유형	5
1) 한옥마을 경관의 개념	5
2) 한옥마을 경관의 유형	9
2. 조사대상 한옥마을 선정 및 우수경관 시각자료 수집	15
1) 조사대상 한옥마을 선정	15
2) 한옥마을 경관 시각자료 수집	24
제3장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25
1. 고성 왕곡마을	25
1) 고성 왕곡마을 역사 및 현황	25
2) 고성 왕곡마을 우수경관	29
2. 영주 무섬마을	44
1) 영주 무섬마을 역사 및 현황	44
2) 영주 무섬마을 우수경관	47

3.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60
1)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역사 및 현황	60
2)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우수경관	63
제4장 연구의 요약 및 의의	83
1. 연구의 요약	83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88
 참고문헌	91
부록	97

표차례

[표 2-1] 경관의 사전적 정의 및 법적 정의	6
[표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정의	7
[표 2-3]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정의	8
[표 2-4]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유형	10
[표 2-5]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유형(계속)	11
[표 2-6] 지자체 경관 사업계획 사례	12
[표 2-7] 지자체 경관 사업계획 사례(계속)	13
[표 2-8] 본 연구의 한옥마을 경관 유형	14
[표 2-10]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문화재	16
[표 2-10] 인터넷 사진정보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17
[표 2-11] 인터넷 사진정보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계속)	18
[표 2-12] 인터넷 사진정보 분포조사 주요내용	19
[표 2-13] 한옥마을 후보 선정	22
[표 2-17] 조사대상 한옥마을 특징	23
[표 3-1] 고성 왕곡마을 개요	25
[표 3-2] 고성 왕곡마을 가옥 현황	28
[표 3-3] 영주 무섬마을 개요	44
[표 3-4] 영주 무섬마을 가옥 현황	46
[표 3-5]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개요	60
[표 3-6]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가옥 현황	62
[표 4-1]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 단계별 연구방향	90

그림차례

[그림 1-1] 한옥마을 선정방법 및 추진과정	3
[그림 2-1]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지점의 무작위 태크와 사진	17
[그림 2-2] 상점분포현황	18
[그림 2-3] 전국의 플리커 사진정보 분포	18
[그림 2-4]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옥마을 사진 분포	20
[그림 2-5]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통한 한옥마을 사진 분포	20
[그림 2-6] 한옥마을 경관 관련 문헌에 나타난 민속문화재 한옥마을 수	21
[그림 2-7] 한옥마을 경관 시각자료 예시	24
[그림 3-1] 고성 왕곡마을 형국	27
[그림 3-2] 고성 왕곡마을 배치도 및 가옥 현황	28
[그림 3-3] 왕곡마을 풍수형국:행주형	30
[그림 3-4] 왕곡마을 전경	30
[그림 3-5] 동학 상징 탑:	32
[그림 3-6] 왕곡마을 위치도	32
[그림 3-7] 함석영 가옥	34
[그림 3-8] 김세정 가옥	34
[그림 3-9] 최방웅 가옥 배치도	35
[그림 3-10] 최방웅 가옥	36
[그림 3-11] 함석영 가옥	36
[그림 3-12] 함석영 가옥	38
[그림 3-13] 함석영 가옥	38

[그림 3-14] 김세정 가옥	38
[그림 3-15] 함범균 가옥 외양간(마구)	40
[그림 3-16] 김유집 가옥 외양간(마구)	40
[그림 3-17] 함형찬 가옥 굴뚝	41
[그림 3-18] 함형찬 가옥 굴뚝	41
[그림 3-19] 왕곡마을 안길	43
[그림 3-20] 양근 함씨 4세 효자각	43
[그림 3-21] 무섬마을 배치도	46
[그림 3-22] 무섬마을 전경	48
[그림 3-23]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48
[그림 3-24] 김재진 가옥	50
[그림 3-25] 박천립 가옥 합각(까치구멍)	50
[그림 3-26] 김규진 가옥	50
[그림 3-27] 김무병 가옥 안마당	52
[그림 3-28] 김정규 가옥 부엌 공간	52
[그림 3-29] 김위진 가옥 평면도	53
[그림 3-30] 김재영 가옥 평면도	53
[그림 3-31] 김위진 가옥	54
[그림 3-32] 김규진 가옥	54
[그림 3-33] 만족재 고택 사랑채	56
[그림 3-34] 만족재 고택 전경	56
[그림 3-35] 만족재 고택 안마당	56
[그림 3-36] 만족재 고택 평면도	58
[그림 3-37] 해우당 고택 평면도	58
[그림 3-38] 해우당 고택 전경	59
[그림 3-39] 해우당 고택 안채 대청과 안	59
[그림 3-40] 해우당 고택 안채 대청	59
[그림 3-41]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배치도	62
[그림 3-42]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마을 형국	63

[그림 3-43]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격자형 주거	64
[그림 3-44]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마을 안길과 담장1	65
[그림 3-45]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마을 안길과 담장2	66
[그림 3-46] 조산무더기	67
[그림 3-47] 문근만 가옥 토담과 방풍림	68
[그림 3-48] 수봉정사 안마당	69
[그림 3-49] 광거당과 노송	70
[그림 3-50] 문화목 가옥 대문간 및 대문간 옆 사랑채 출입을 위한 일각문	71
[그림 3-51] 문시갑 가옥 안채와 사랑채의 고즈넉한 풍경	73
[그림 3-52]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가옥 전경 및 문대갑가옥 합각	74
[그림 3-53] 문화목 가옥의 문처럼 만든 교창형 구조물(좌) 사랑채 내부(우)	74
[그림 3-54] 수봉정사 거북모양의 빗장	75
[그림 3-55] 수봉정사 전면	76
[그림 3-56] 위창 오세창 선생 글씨의 편액, 대들보, 종보, 마루대공의 구조	77
[그림 3-57] 수봉정사 앞 퇴 전경	77
[그림 3-58] 광거당 화방벽 및 굴뚝	78
[그림 3-59] 광거당 담장	78
[그림 3-60] 광거당 배치도	79
[그림 3-61] 광거당 내외담(꽃담)	80
[그림 3-62] 광거당 전경	80
[그림 3-63] 광거당 쪽마루와 내루의 머름대	81
[그림 3-64] 광거당 방의 분합	81
[그림 3-65] 인수문고 전경(위) 및 내부(아래)	82
[그림 4-1] 왕곡마을 자연경관	84
[그림 4-2] 왕곡마을 지붕경관	84
[그림 4-3] 무섬마을 자연경관	85
[그림 4-4] 무섬마을 마을경관	85
[그림 4-5]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지붕경관	87
[그림 4-6]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가로경관	8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3.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과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옥마을의 역사성과 공간설계논리를 고려하지 않은 마을복원사업으로 인해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옛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한옥마을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관광지화되어 그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한옥마을의 올바른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마을의 원형경관을 파악하고 마을의 전통성과 향토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마을 경관 형성의 주요 요소인 전통가옥뿐만 아니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 등을 포괄하는 마을 전체의 경관영역까지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한옥마을의 경관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발굴하여 홍보하며 전통마을 경관에 대한 조명과 이해를 통해 선조들의 경관설계 논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옥마을 경관의 우수사례 DB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옥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신규 한옥마을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은 한옥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우수한 경관을 간직하여 중요민속문화재¹⁾로 지정된 한옥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을 선정함으로써 한옥마을 경관의 우수함과 보존가치

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포함하여 현재 총 8개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고성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총 3개의 한옥마을을 선정하여 우수한 경관을 분석하고 마을경관을 기록화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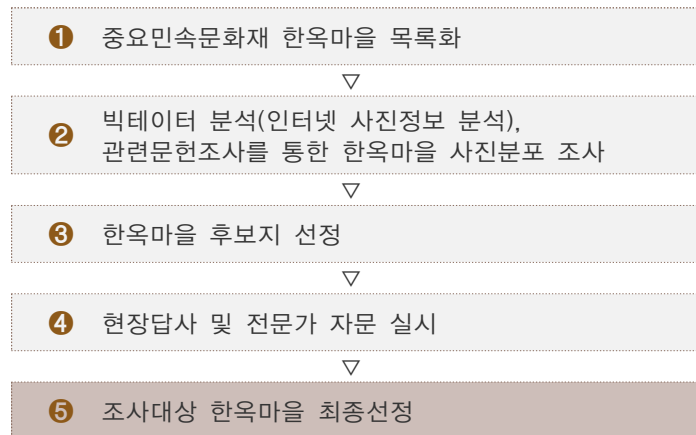
□ 한옥마을 경관의 개념 및 유형 설정

한옥마을의 역사적·공간적 특징을 고려하여 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옥마을 경관 관련 선행연구 및 법규에 나타난 마을경관의 개념을 조사·분석하고 ‘한옥마을 경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다. 이 후 국토부 고시,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자원 유형과 조망대상 및 방법을 분석하여 한옥마을 경관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경관 시각자료를 수집하고 한옥마을 경관설계논리를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한옥마을 선정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한옥마을 선정을 위해 우선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을 목록화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경관을 갖고 있지만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옥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마을 인터넷 사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우수한 경관을 갖고 있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진 마을을 선별하였다. 이 후 예비 후보지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수행하여 현재의 여건과 변화 모습 등 실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한옥마을을 최종 선정하였다.

1) 「문화재보호법」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림 1-1] 한옥마을 선정방법 및 추진과정

□ 한옥마을 경관 시각자료 수집

한옥마을 우수경관 계획요소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옥마을 경관 관련 시각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관설계논리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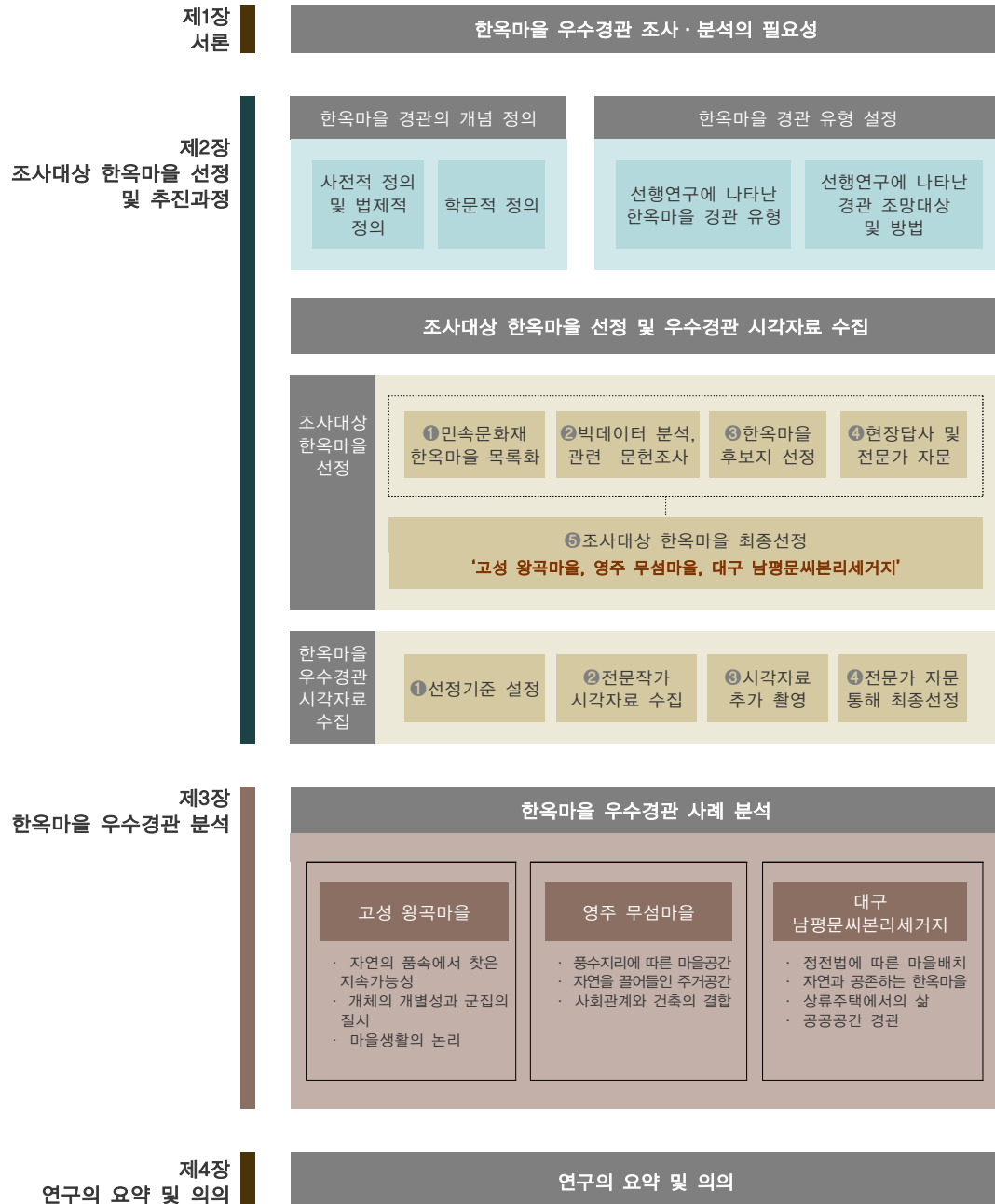
한옥마을 경관 관련 시각자료는 한옥마을 경관 유형을 고려하여 마을별 자연환경 특징과 공간설계논리가 잘 나타난 사진을 수집하였다. 또한 마을 내 문화재급 한옥 또는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 개별한옥의 디테일 사진을 수집하였다. 시각자료는 한옥마을의 우수한 경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진작가가 보유한 자료의 구득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 시점에서 마을의 우수경관을 발굴·기록할 수 있도록 오래된 모습보다는 가급적 최근의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사진은 연구진이 직접 촬영하였다. 수집된 시각자료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분석

선정된 한옥마을(고성 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을 대상으로 역사 및 현황, 풍수지리학적 입지, 주거 특징 등 기본이력사항을 우선 조사하고, 동시에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각 마을이 갖는 우수경관 계획요소를 분석하였다.²⁾

2) 전문가활용을 통한 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의 원고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3. 연구의 흐름



제2장 한옥마을 선정 및 추진과정

1. 한옥마을 경관의 개념 및 유형
2. 조사대상 한옥마을 선정 및 우수경관 시각자료 수집

1. 한옥마을 경관의 개념 및 유형

1) 한옥마을 경관의 개념

① 선행연구 나타난 한옥마을 경관의 개념

연구의 진행에 앞서 한옥마을 경관 관련 법규 및 선행연구에 나타난 마을경관의 개념을 조사·분석하고 본 연구의 ‘한옥마을 경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다.

□ 사전적 정의 및 법제적 정의

사전적 정의에 나타난 ‘경관’은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을 의미하는데³⁾, 크게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된다. ‘경관’의 법제적 정의는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의미한다. 한편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표 2-1] 경관의 사전적 정의 및 법적 정의

구분		경관 정의	출처	
경관의 정의	사전적 정의	1.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경치', '아름다운 경치'로 순화 2. <지리>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으로 구분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법적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경관법」	법률 제12013호, 2013.8.6./ 시행 2014.2.7.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제 1장 총칙, 제2절(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1-2-1.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 계획이다.	「경관계획 수립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2-954호

□ 학문적 정의

‘한옥마을 경관’은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농촌경관, 역사문화경관’의 개념을 포함한다.

윤정식(2009)은 ‘경관’은 대상을 바라보아 발생하는 인간의 심적 사상으로 평가하였고, 임승빈(1994)은 ‘경관’은 자연 및 인공 풍경 모두를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 생태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신정숙(2014)은 ‘농촌경관’이란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물리적·문화적 요소와 그 주변환경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토지와 이에 부속된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가치, 역사, 문화 등의 인문적인 요소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건채, 구재환(2007)도 ‘농촌경관’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농업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경관으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한승호(2003)는 ‘농촌경관’은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요인과 함께 경제적 요인도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오진숙(2011)은 ‘역사문화경관’은 역사경관과 문화경관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오

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자연환경이 인간의 활동과 행위에 의해 문화화된 경관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수연(2013)도 ‘역사문화경관’은 일정지역의 역사, 문화를 반영한 보전가치가 높은 구조물과 그 주변의 공간이 이루는 문화요소, 역사유적과 같이 현대경관 속에 남아 있는 보존대상으로서의 경관으로 정의하였다.

[표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정의

구분	연구자/ (년도)	연구명	경관 정의
경관	윤정식 (2009)	조망점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 비교 분석 연구	경관은 본질적으로 다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관’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의 심적 현상으로 대상을 바라보아 발생하는 인간의 삼적 사상으로 평가 되며,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발생 하는 것이다.
	임승빈 (1998)	경관분석론	‘경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및 인공 풍경 모두를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 생태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경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보이는 풍경’을 뜻하며, 이차적으로는 보이는 풍경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한다.
농촌경관	신정숙 (2014)	농촌경관계획 대상요 소의 도출 및 분류 개선에 관한 연구	‘ 농촌경관 ’은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물리적·문화적 요소와 그 주변 환경을 망라하는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의 토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사물이며, 이와 어우러진 자연경관과 가치, 역사, 문화 등의 인문적인 요소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건채, 구재환 (2007)	마을의 경관구조 및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	농촌마을의 숲, 마을 커뮤니티의 특성, 농업경관, 주택 및 건축물의 주거지 정주환경 및 마을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계, 마을의 환경디자인요소 등과 같은 경관요소의 결합이 마을경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마을경관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소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처럼 ‘ 농촌경관 ’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농업활동의 구체적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경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묶여져 있는 경관 이라 할 수 있다.
	한승호 (2003)	농촌마을 경관계획 에 있어 경관정보의 수집과 가시화기법 연구	‘ 농촌경관 ’은 인간에 의해 형성된 문화경관으로,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전통에 바탕을 두고 발달 해왔다. ‘농촌경관’은 시각·물리적 구성요소로서 촌락의 입지형태, 가옥의 평면배치형태, 건축재료, 경작지의 형태, 내부도로의 형태 등에 의해 전체적인 경관이 형성 되며, 생산성을 기반으로 경관이 형성된다.

[표 2-3]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정의

구분	연구자/ (년도)	연구명	경관 정의
역사문화 경관	오진숙 (2011)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역사문화경관’은 역사경관과 문화경관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활, 경험, 기술, 문화 등의 활동과 행위에 의해 문화화된 경관이다. 따라서 역사문화경관은 삶의 흔적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여 형성되는 도시경관이다.
	김수연 (2013)	역사문화경관의 시지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경복궁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역사문화경관’이라 함은 일정지역의 역사, 문화를 반영한 보전가치가 높은 구조물과 그 주변의 공간이 이루는 문화요소, 역사유적과 같이 현대경관 속에 남아 있는 보존대상으로서의 경관을 말한다.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역사의 결과물인 동시에 동시대의 역사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 모두의 경관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최재용 외(2004),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2
 임승빈(1998),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원, pp.3~5
 신정숙 외(2014), 「농촌경관계획 대상요소의 도출 및 분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12, n.4, p.143
 정건재, 구재환(2007), 「마을의 경관구조 및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9, n.1, p.2
 한승호(2003), 「농촌마을 경관계획에 있어 경관정보의 수집과 가시화기법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1
 오진숙(2011),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석사논문, p.15
 김수연(2013), 「역사문화경관의 시지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복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석사논문, p.9)

② 한옥마을 경관 정의

본 연구에서의 한옥마을 경관은 마을의 풍경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거주자들의 역사·문화가 마을에 반영된 경관을 의미하며 자연경관, 주거지경관, 가로경관, 공공공간경관, 역사문화경관의 모든 계획요소를 포함한다.

2) 한옥마을 경관의 유형

① 선행연구에 나타난 한옥마을 경관 유형

본 연구에서는 한옥마을의 역사적·공간적 특징을 고려하여 우수한 경관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자원 유형과 경관 조망 대상 및 방법을 토대로 한옥마을 경관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한옥마을 우수 경관 시각자료를 수집하고 경관설계논리를 분석하였다.

□ 국토부 고시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나타난 경관자원 유형

국토부는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였다. 지자체는 본 지침을 참조하여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며 경관계획의 목표, 기본방향 설정,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방안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해당 도의 경관특성을 나타내거나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관자원 중에서 자원의 중요도·가치 등을 기준으로 도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경관자원을 파악하고,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경관자원은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필요 시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역의 생활상,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을 포함한다.

■ 경관자원 유형_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54, 경관계획 수립지침

-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 농산어촌경관자원 : 주요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 시가지경관자원 : 주요 건물 및 시설물,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상업업무경관·공업경관 자원 등
-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 도로, 철도 등
-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등의 문화재와 그 밖의 한옥, 근대건축물, 역사적문화적 기념물 등
- 기타 : 상징적 지역 이미지, 지역의 생활상, 그 밖의 역사문화자원 등 비물질적 경관자원

□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유형

정태일(2003)은 녹지경관, 수변경관, 해양경관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 시가지경관, 축경관, 기타경관의 인공경관으로 경관 유형을 구분하였다. 오진숙(2011)은 물적요소와 비물적 요소로 경관 유형을 구분하였다. 물적요소에는 자연적 요소와 도시형태, 건축물, 시설물 등의 인공적요소가 포함되며, 비물적요소에는 사건, 활동, 분위기 등이 포함된다. 윤정식(2009)은 스카이라인, 산림 및 녹지경관, 수 경관, 농촌경관, 역사문화경관, 생태경관, 조망축으로 경관유형을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유형은 녹지경관, 수변경관 등의 자연경관과 건축물, 도시 형태 등의 시가지 및 역사문화경관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2-4]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유형

구분	연구자/ (년도)	연구명	경관 유형			
경관 유형	정태일 (2003)	우리나라 경관 관련 법·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	- 자연경관(녹지경관, 수변경관, 해양경관)과 인공경관 (역사경관, 시가지경관, 축경관, 기타경관)으로 경관 유형 구분			
			경관유형 구분			
			자연경관	녹지경관	-	
				수변경관	-	
				해양경관	-	
			인공경관	역사경관	-	
				시가지경관	주거지경관, 상업업무지경관, 공업지경관	
축경관	도시축경관, 도로축경관, 조망축경관					
기타경관	색채경관, 야간경관, 옥외광고물경관					
역사문화 경관의 구성요소	오진숙 (2011)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가치해석에 관한 연구	- 물적요소와 비물적 요소로 경관유형 구분			
			- 물적요소는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역사문화자 원, 생활문화자원)를 포함하며, 비물적 요소는 사건, 활동, 분위기 등 무형자원을 포함			
			경관유형 구분			
			물적 요소	자연적 요소	자연경관 자원	지형, 수문, 식생
				인공적 요소	역사문화 자원	도시형태(가로패턴), 건축물, 시설물
					생활문화 자원	문화시설, 소비시설, 생활주거지, 공공공간
			비물적 요소	사건 활동 분위기	무형자원	축제, 민속놀이, 서로하, 풍습, 제도 등

[표 2-5]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유형(계속)

구분	연구자/ (년도)	연구명	경관 유형	
자연경관 유형별 구성요소	윤정식 (2009)	조망점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 비교 분석 연구	- 스카이라인, 산림 및 녹지경관, 수 경관, 농촌경관, 역사문화경관, 생태경관, 조망축으로 경관유형 구분	
			경관유형 구분	주요내용
			스카이 라인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
			산림 녹지경관	산지 및 구릉지의 능선 및 주변부
				자연형 랜드마크(암벽, 폭포, 고목 등)
				도시지역 내의 녹지
			수 경관	하천, 해안및도서, 호수및습지
			농촌경관	농경지, 농촌마을 등
			역사문화경관	문화재 및 지역 향토문화유적 들
			생태경관	철새도래지, 야생동물서식처 등
			조망축	주요 조망점→주요 경관자원

(출처: 정태일(2003), 「우리나라 경관 관련 법·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 v.19.n.10, p.119)
 오진숙(2011),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 자원의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석사학위논문, p.20
 윤정식(2009), 「조망점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 비교·분석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p.9)

□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 조망대상 및 방법

지자체 경관사업계획 및 우수경관 지정 사례에 나타난 조망대상, 조망방법 및 위치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경관 유형 및 조망방법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조망 대상 및 방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조망대상(무엇을 볼 것인가?)** : 역사적·상징성이 뛰어난 경관(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은 고택 등), 자연경관(농촌풍경, 녹지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마을진입경관, 한옥밀집지역 경관, 지붕경관, 골목길 경관 등
- **조망방법(어떻게 볼 것인가?)** : 전경, 투시도적 경관, 특정 대상 조망
- **조망위치(어디서 볼 것인가?)** : 시가지 내의 높은 건축물이나 전망대·시가지 주변의 높은 산자락, 시가지 내의 한 지점 (이용빈도가 높은 지점, 도로 결절점, 진입로, 역사적·상징적 거점, 공공성이 높은 지점, 개방적인 지점 등)

[표 2-6] 지자체 경관 사업계획 사례

지자체 경관 사업계획 사례	주요내용	조망대상, 조망방법 및 조망위치																								
과천시 (2003), ‘과천시 경관관리 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시경관의 조망유형에 따라 거시적 조망점과 미시적 조망점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망대상) 도시전경, 도시 스카이라인, 단지경관, 가로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주요 시설경관(조망방법) 전경, 투시도적 경관(조망위치) 도시 외부의 높은 지점, 도시 내부에서 특정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table><tr><th>조망 유형</th><th>조망점 선정기준</th></tr><tr><td>거시적 조망점</td><td>거시적 저망점을 산이나 구릉지 혹은 고층건축물의 정상부에서 내려다보는 파노라믹한 경관연출의 조망점과 도시의 진입부에서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나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조망점으로 정의하고, 파노라마 조망점과 진입부 조망점을 제시</td></tr><tr><td>미시적 조망점</td><td>미시적 조망점을 단지경관, 가로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주요 시설경관으로 정의하고, 5개의 경관유형별로 조망점 선정기준 제시</td></tr></table>		조망 유형	조망점 선정기준	거시적 조망점	거시적 저망점을 산이나 구릉지 혹은 고층건축물의 정상부에서 내려다보는 파노라믹한 경관연출의 조망점과 도시의 진입부에서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나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조망점으로 정의하고, 파노라마 조망점과 진입부 조망점을 제시	미시적 조망점	미시적 조망점을 단지경관, 가로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주요 시설경관으로 정의하고, 5개의 경관유형별로 조망점 선정기준 제시																		
	조망 유형		조망점 선정기준																							
거시적 조망점	거시적 저망점을 산이나 구릉지 혹은 고층건축물의 정상부에서 내려다보는 파노라믹한 경관연출의 조망점과 도시의 진입부에서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나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조망점으로 정의하고, 파노라마 조망점과 진입부 조망점을 제시																									
미시적 조망점	미시적 조망점을 단지경관, 가로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주요 시설경관으로 정의하고, 5개의 경관유형별로 조망점 선정기준 제시																									
(출처: 방재성 외(2008), 조망점의 선정기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36, n.1, p75 내용 재구성)																										
순천시 (2009), ‘순천시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순천시 경관관리를 위한 조망점을 선정. 조망점 위치가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망대상) 순천 시가지 전경, 역사성·상징성이 뛰어난 경관, 주요 산 경관, 가로경관(조망방법) 전경, 투시도적 경관(조망위치) 이용빈도가 높은 지점, 진입로, 주요 통행로 결절점, 공공공간, 산 정상, 역사적·상징적 거점																								
	<table><tr><th>조망점 위치</th><th>특성</th></tr><tr><td>봉화산 정상</td><td>생태수도 순천의 중심 조망점</td></tr><tr><td>난봉산 정상</td><td>동서남북, 사방으로 트인 조망점</td></tr><tr><td>죽도봉 강남정</td><td>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서 개방적 조망점</td></tr><tr><td>의료원 교차로</td><td>순천부읍성 북문에 해당하며, 사실상의 도심 진입부</td></tr><tr><td>남문교</td><td>순천부읍성 남문에 해당하며, 주민화합의 역사적 스토리가 있어 주민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거점</td></tr><tr><td>순천고 오거리</td><td>중앙로, 우석로, 팔마로가 만나는 가로 경관 거점</td></tr><tr><td>선평 삼거리</td><td>순천 나들목과 국도를 통해 순천 첫 조망점</td></tr><tr><td>호현 삼거리</td><td>우석로에서 보성·별교, 낙안읍성 등 면 지역, 신도심으로 향하는 다양한 지역으로의 출구</td></tr><tr><td>조례 사거리</td><td>백강로, 충효로, 팔마로 등 신도심 간선가로 조망거점</td></tr><tr><td>체육관 사거리</td><td>광야시, 여수시로의 진출입 공간</td></tr><tr><td>금당 버드내공원</td><td>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상징적 거점</td></tr></table>		조망점 위치	특성	봉화산 정상	생태수도 순천의 중심 조망점	난봉산 정상	동서남북, 사방으로 트인 조망점	죽도봉 강남정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서 개방적 조망점	의료원 교차로	순천부읍성 북문에 해당하며, 사실상의 도심 진입부	남문교	순천부읍성 남문에 해당하며, 주민화합의 역사적 스토리가 있어 주민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거점	순천고 오거리	중앙로, 우석로, 팔마로가 만나는 가로 경관 거점	선평 삼거리	순천 나들목과 국도를 통해 순천 첫 조망점	호현 삼거리	우석로에서 보성·별교, 낙안읍성 등 면 지역, 신도심으로 향하는 다양한 지역으로의 출구	조례 사거리	백강로, 충효로, 팔마로 등 신도심 간선가로 조망거점	체육관 사거리	광야시, 여수시로의 진출입 공간	금당 버드내공원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상징적 거점
	조망점 위치		특성																							
봉화산 정상	생태수도 순천의 중심 조망점																									
난봉산 정상	동서남북, 사방으로 트인 조망점																									
죽도봉 강남정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서 개방적 조망점																									
의료원 교차로	순천부읍성 북문에 해당하며, 사실상의 도심 진입부																									
남문교	순천부읍성 남문에 해당하며, 주민화합의 역사적 스토리가 있어 주민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거점																									
순천고 오거리	중앙로, 우석로, 팔마로가 만나는 가로 경관 거점																									
선평 삼거리	순천 나들목과 국도를 통해 순천 첫 조망점																									
호현 삼거리	우석로에서 보성·별교, 낙안읍성 등 면 지역, 신도심으로 향하는 다양한 지역으로의 출구																									
조례 사거리	백강로, 충효로, 팔마로 등 신도심 간선가로 조망거점																									
체육관 사거리	광야시, 여수시로의 진출입 공간																									
금당 버드내공원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상징적 거점																									
(출처: 박정현 외(2011), 조망경관계획에서 조망점 설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n.13, v.40, p12 내용 재구성)																										

[표 2-7] 지자체 경관 사업계획 사례(계속)

지자체 경관 사업계획 사례	주요내용	조망대상 및 조망위치																											
서울시(2003). '서울의 주요 산 주변 조망경관 보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망경관 구성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면서 조망점 위치가 갖는 특성 제언. 특별한 조망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망점 위치가 갖는 특성을 통해 선정기준 유추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table><tr><th>조망점 위치</th><th>특성</th></tr><tr><td>역사성</td><td>과거와 현재에 산 조망 및 주변 풍치의 감상이 우수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연구를 통해 알려진 지점</td></tr><tr><td>공공성</td><td>광장, 공원, 도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간</td></tr><tr><td>접근성</td><td>공공공간 중 시민들의 통행,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이용범위, 이용빈도</td></tr><tr><td>개방성</td><td>시가지에서 조망대상으로 양호한 조망을 형성할 조건을 갖춘 지점</td></tr></table> <p>(출처 : 방제성 외(2008), 「조망점의 선정기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n.36, v.1, p.75)</p>	조망점 위치	특성	역사성	과거와 현재에 산 조망 및 주변 풍치의 감상이 우수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연구를 통해 알려진 지점	공공성	광장, 공원, 도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간	접근성	공공공간 중 시민들의 통행,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이용범위, 이용빈도	개방성	시가지에서 조망대상으로 양호한 조망을 형성할 조건을 갖춘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망대상) 산 경관, 기존 문헌을 통해 우수경관으로 지정된 경관, 공공공간 경관(조망방법) 전경, 투시도적 경관(조망위치) 이용빈도가 높은 지점, 시가지에서 우수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조망점 위치	특성																												
역사성	과거와 현재에 산 조망 및 주변 풍치의 감상이 우수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연구를 통해 알려진 지점																												
공공성	광장, 공원, 도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간																												
접근성	공공공간 중 시민들의 통행,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이용범위, 이용빈도																												
개방성	시가지에서 조망대상으로 양호한 조망을 형성할 조건을 갖춘 지점																												
서울시, '북촌 8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시는 북촌 한옥마을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지점 8곳을 '북촌 8경' 으로 선정. 한옥경관과 한옥이 주도하는 골목길 풍경이 주로 선정됨 <table><tr><th>북촌8경</th><th>조망위치</th><th>조망대상</th></tr><tr><td>북촌1경</td><td>돌담</td><td>돌담 너머로 보이는 창덕궁(문화재) 조망</td></tr><tr><td>북촌2경</td><td>원서동 골방길</td><td>골목길 조망</td></tr><tr><td>북촌3경</td><td>가회동 박물관길</td><td>골목길 조망</td></tr><tr><td>북촌4경</td><td>가회동 31번지 언덕</td><td>한옥밀집지역의 지붕경관 조망</td></tr><tr><td>북촌5경</td><td>가회동 골목길(내림)</td><td>골목길 조망(한옥밀집지역의 골목길 조망)</td></tr><tr><td>북촌6경</td><td>가회동 골목(오름)</td><td>골목길 조망(한옥 지붕사이로 도심을 조망)</td></tr><tr><td>북촌7경</td><td>가회동 31번지 골목</td><td>골목길 조망</td></tr><tr><td>북촌8경</td><td>북정길에서 삼청동길로 내려가는 돌층계길</td><td>골목길 조망</td></tr></table>	북촌8경	조망위치	조망대상	북촌1경	돌담	돌담 너머로 보이는 창덕궁(문화재) 조망	북촌2경	원서동 골방길	골목길 조망	북촌3경	가회동 박물관길	골목길 조망	북촌4경	가회동 31번지 언덕	한옥밀집지역의 지붕경관 조망	북촌5경	가회동 골목길(내림)	골목길 조망(한옥밀집지역의 골목길 조망)	북촌6경	가회동 골목(오름)	골목길 조망(한옥 지붕사이로 도심을 조망)	북촌7경	가회동 31번지 골목	골목길 조망	북촌8경	북정길에서 삼청동길로 내려가는 돌층계길	골목길 조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망대상) 역사성·상징성이 뛰어난 경관, 한옥밀집지역 지붕경관 및 골목길 경관, 시가지경관(조망방법) 전경, 투시도적 경관, 특정대상조망(조망위치) 높은 위치의 돌담 및 언덕, 골목길, 골목길 절절점
북촌8경	조망위치	조망대상																											
북촌1경	돌담	돌담 너머로 보이는 창덕궁(문화재) 조망																											
북촌2경	원서동 골방길	골목길 조망																											
북촌3경	가회동 박물관길	골목길 조망																											
북촌4경	가회동 31번지 언덕	한옥밀집지역의 지붕경관 조망																											
북촌5경	가회동 골목길(내림)	골목길 조망(한옥밀집지역의 골목길 조망)																											
북촌6경	가회동 골목(오름)	골목길 조망(한옥 지붕사이로 도심을 조망)																											
북촌7경	가회동 31번지 골목	골목길 조망																											
북촌8경	북정길에서 삼청동길로 내려가는 돌층계길	골목길 조망																											

② 한옥마을 경관 유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국토부 고시 및 선행연구에 나타난 경관자원 유형과 경관 조망대상, 조망방법을 토대로 한옥마을 경관을 ‘마을경관, 자연경관, 가로경관, 공공공간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5개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망범위에 따라 전경, 중경, 근경, 개별건축물 내·외부 투시경관, 부위별 경관으로 분류하였다.

[표 2-8] 본 연구의 한옥마을 경관 유형

경관 유형	조망대상		실외경관			실내경관 (개별 건축물)	
			전경	중경	근경	내외부 투시 경관	부위별 경관
1. 마을경관	마을경관	마을 지붕경관, 마을 진입로에서 바라본 마을경관, 마을 내부 투시경관, 마을 진입경관(대문) 등	○	○	○	○	○
2. 자연경관	농어촌 경관, 녹지경관, 수변경관	마을 자연경관 전경, 풍수상 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연경관(특정대상 조망), 주거지 안·밖에서 바라본 자연경관 등	○	○	○	○	-
3. 가로경관	마을 진출입, 골목길, 담장 경관	특징이 되는 골목길 경관, 담장경관, 성벽경관 등	○	○	○	○	-
4. 공공공간 경관	공공성, 이용빈도가 높은 공간 경관	광장, 마당, 우물경관 등	○	○	○	○	-
5. 역사문화 경관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 및 문화재	고택, 정자, 문화재 내외부 투시경관, 부위별 경관 등	-	○	○	○	○

2. 조사대상 한옥마을 선정 및 우수경관 시각자료 수집

1) 조사대상 한옥마을 선정

① 한옥마을 선정기준 및 추진과정

□ 한옥마을 선정기준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은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는 유형 자원을 갖고 있으며 지역 환경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한옥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비교적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옥마을을 선정하여 전통마을 경관의 우수함과 보존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 추진과정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한옥마을 선정을 위해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총 8개의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⁴⁾을 목록화하였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가치가 큰 유산⁵⁾으로,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은 우수한 전통마을 경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마을 중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옥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한옥마을 사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대중적으로 사진정보가 많이 확보된 마을을 선별하였으며, 한옥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옥마을 후보지를 선별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4개의 한옥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답사 및 전문가자문을 거쳐 조사대상 한옥마을을 최종 선정하였다.

② 한옥마을 선정방법

□ 민속문화재 한옥마을 목록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되며 중요도에 따라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⁶⁾ 한

4) 「문화재보호법」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제3항

옥마은은 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문화재, 민속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된다.

[표 2-10]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문화재

문화재 범주	문화재 종류	지정일	한옥마을	비고
마을 (문화재 보호법 기반)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회북촌택(중요민속문화재 제84호) - 하회원지정사(중요민속문화재 제85호) - 하회빈연정사(중요민속문화재 제86호) - 하회풍산류씨작전택(중요민속문화재 제87호) - 하회옥연정사(중요민속문화재 제88호) - 하회검암정사(중요민속문화재 제89호) - 하회 남촌택(중요민속문화재 제90호) - 하회 주일재(중요민속문화재 제91호) - 하회동 하동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177호)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읍고상근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72호) - 성읍조일훈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68호)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 양동 무첨당(보물 제411호) - 경주 양동 향단(보물 제412호) - 양동서백당(중요민속문화재 제23호) - 양동낙선당(중요민속문화재 제73호) - 양동사호당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74호) - 양동상촌헌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75호) - 양동근암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76호) - 양동두곡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77호) - 양동수출당(중요민속문화재 제78호) - 양동강학당(중요민속문화재 제83호) • 문화재로 지정된 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동이향정(중요민속문화재 제79호) - 양동수운정(중요민속문화재 제80호) - 양동심수정(중요민속문화재 제81호) - 양동안락정(중요민속문화재 제82호)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2000	• 충남 아산외암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2000	• 강원 고성왕곡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2007	• 경북 성주한개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2013	• 경북 영주무섬마을
	시·도지정 문화재	대구광역시 시도 민속문화재 제3호	1995	•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인홍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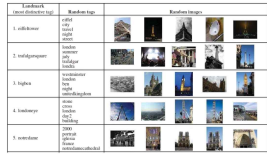
(출처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정보' 재구성, 「문화재청」, <http://www.cha.go.kr/>)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마을은 안동 하회마을, 성읍 민속마을, 경주 양동마을, 아산 외암마을, 고성 왕곡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총 8개 마을로 국가지정문화재⁷⁾ 중요민속문화재 7건, 시·도지정문화재⁸⁾ 민속문화재 1건이 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옥마을 사진 분포 조사

우수한 경관을 갖고 있지만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진 한옥마을을 선별하기 위해 한옥마을 사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사진정보는 총 수량 파악에 한계가 있어 키워드별 모든 사진정보에 대한 분포파악은 어려우나 대표적인 몇몇 지점 즉, 우수경관을 갖고 있는 마을 현황 및 조망 경관에 대한 정보 파악 시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⁹⁾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옥마을 관련 인터넷 사진정보 분포조사를 통해 마을경관 거점을 발굴하고 한옥마을 조사대상을 검토하였다.

[표 2-10] 인터넷 사진정보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인터넷 사진정보 활용 목적	인터넷 사진정보 활용사례
Li Y et al (2009)	Landmark Classification in large-scale Image Collections, IEEE 12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dmark Classification in Large-scale Image Coll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리커에서 전세계 유명도시 중 3천 만개 사진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추출하고 이들에 포함되어 있는 text와 tag 분석을 통해 랜드마크를 분류 • 각 지점의 누적사진수가 많으면 상위 랜드마크이며, 랜드마크의 이미지와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여 이미지의 정확도를 높임 	 <p>[그림 2-1]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지점의 무작위 태크와 사진 (출처: Yunpeng Li et al., 200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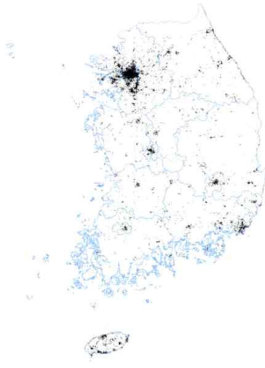
(출처: 조상규, 성은영((2012), 장소 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한 인터넷 사진 정보 활용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29~30)

7) 「문화재보호법」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8)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9) 인터넷 사진정보에는 위치정보, 촬영 날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한옥마을 사진 분포 현황, 사진 촬영 시기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표 2-11] 인터넷 사진정보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계속)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인터넷 사진정보 활용 목적	인터넷 사진정보 활용사례
김 선 호 외 (2011)	공 간 구 문 론 을 통한 가로보행 특성과 인터넷 사진의 상관관 계 연구 - 서울 시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사진은 개인의 특정한 장소에 대한 기억 및 인상을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사진맵은 개인의 이미지를 넘어 도시의 이미지로 표현됨 사진맵은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과 장소의 관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압구정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진맵의 사진분포와 보행량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도시공간구조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인터넷 사진정보를 활용 	 <p>[그림 2-2] 상점분포현황 (출처: 김선호 외.,(2011))</p>
조상규, 성은영 (2012)	장소중심의 공간 계획을 위한 인 터넷 사진정보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사진정보는 일반인의 공간 및 경관에 대한 현시적 선호를 표출하며 공간 계획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음 인터넷 사진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주요 지점은 사람들의 관심을 점유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지도화 및 이미지화를 통해 정량화가 어려운 경관에 대한 인식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좌표값을 가지는 인터넷 사진정보를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현되는 장소적 특성을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파악하고, 사진 이미지 유형화를 통해 개별적인 중심장소의 정성적 특성을 파악 	 <p>[그림 2-3] 전국의 플리커 사진정보 분포 (출처: 조상규, 성은영., (20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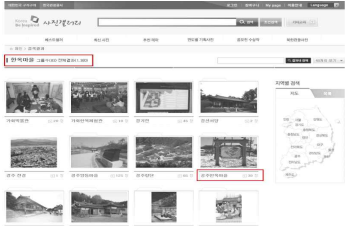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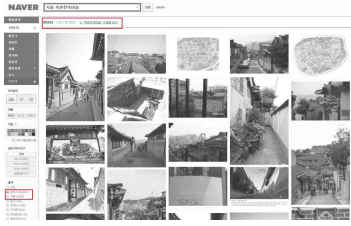
(출처: 김선호 외(2011), 공간구문론을 통한 가로보행특성과 인터넷사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시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계획학회지, n.12, v.4, pp. 128~132)

조상규, 성은영((2012), 장소 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한 인터넷 사진 정보 활용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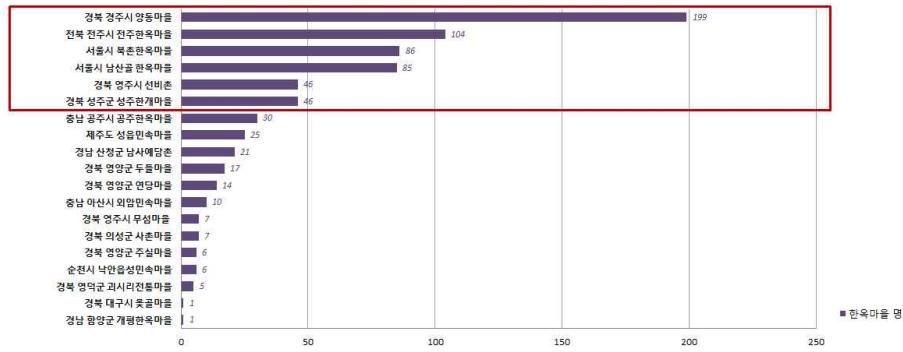
한옥마을 인터넷 사진정보 분포조사는 총 사진개수가 표시되고 주제별 검색을 통한 사진정보 분류화가 가능한 한국관광공사와 네이버 웹사이트의 사진정보를 활용하였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한 한옥마을 사진분포를 조사한 결과, 경주 양동마을, 전주한옥마을, 서울시 북촌한옥마을,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 영주시 선비촌, 성주시 한개마을의 사진이 다수 검색되었다.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통한 한옥마을 사진분포는 전주한옥마을, 서울시

북촌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 영주시 선비촌, 아산 외암민속마을,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 성남 성읍민속마을,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영주 무섬마을, 산청군 남사예담촌, 공주한옥마을 사진이 10,000장 이상으로 다수 검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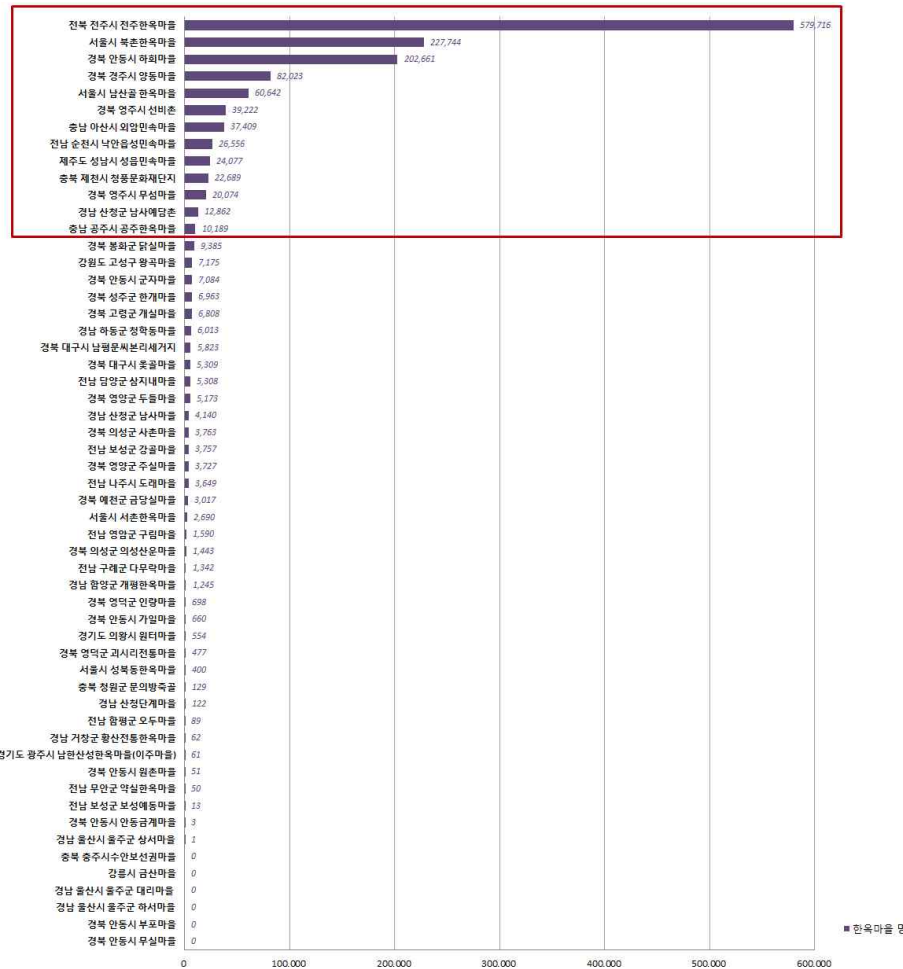
[표 2-12] 인터넷 사진정보 분포조사 주요내용

구분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옥마을 사진정보 분포조사	「네이버」 제공 한옥마을 사진정보 분포조사
활용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의 관광매력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사진 콘텐츠의 고객 접근성과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사진갤러리를 운영 중 총 사진개수가 표시되고 주제에 따라 사진이 그룹핑되어있어 한옥마을별 사진정보 분포조사에 용이 사진 베스트셀러,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게시되어 품질이 좋은 사진정보 추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는 국내최대 검색포털사이트로써 방대한 양의 사진정보를 제공 중 네이버 검색어 입력을 통해 블로그와 카페에 게시된 한옥마을 이미지 추출하여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한옥마을 사진 분포 파악 총 사진개수가 표시되고 주제별 검색을 활용한 사진정보 분류화가 가능하여 한옥마을별 사진정보 분포조사에 용이
제공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테고리별 검색 : 자연, 역사/유적, 민속/전통, 종교, 예술, 문화시설, 축제/행사, 발전상, 테마관광, 숙박/레저/스포츠, 생활상, 기타 조건검색 : 대분류, 중분류, 지역, 사진제목으로 검색 기간별 사진 검색 베스트셀러, 최신사진, 추천테마, 연도별 기획사진, 공모전 수상작, 북한관광사진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지 주제별 검색(예: 서울 북촌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 코스, 북촌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북촌한옥마을 8경) 출처에 따른 이미지 검색 : 블로그/카페/웹/포토뉴스/지식백과/포토갤러리/통로이미지/스타일쉐어 인물중심 이미지 검색 기간별 사진 검색
이미지 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마을’ 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한옥마을별 사진분포 파악(한옥마을별 사진이 그룹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한옥마을을 검색어로 입력하고 사진의 출처는 블로그, 카페로 한정하여 한옥마을별 사진분포 총 개수 파악 인물중심의 사진 수를 추출하여 사진분포 총 개수에서 제외 
사이트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갤러리’, 「한국관광공사」, http://gallery.visitkorea.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지 검색 정보’,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옥마을 인터넷 사진분포 조사 결과_한국관광공사 제공 이미지, 네이버 제공 이미지 추출



[그림 2-4]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옥마을 사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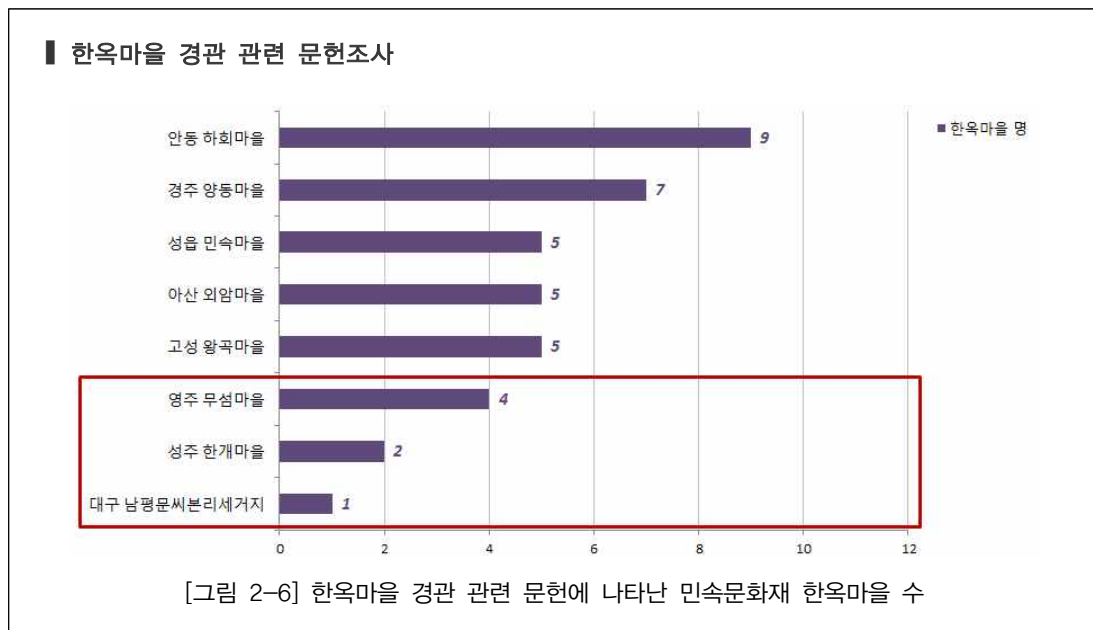


[그림 2-5]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통한 한옥마을 사진 분포

□ 관련 문헌조사를 통한 한옥마을 사진 분포 조사

기존 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한옥마을은 우수한 경관을 갖고 있고 한옥마을 원형이 잘 보존된 마을로 볼 수 있다. 이에 한옥마을 경관 관련 시각자료 및 내용이 수록된 문헌을 목록화하고 수록 마을을 조사하였다. 단, 기존문헌은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선정된 민속문화재 한옥마을(안동 하회마을, 성읍 민속마을, 경주 양동마을, 아산 외암마을, 고성 왕곡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총 8개 마을)이 포함된 문헌으로 한정하였다.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한옥마을 조사대상을 검토한 결과, 한옥마을 경관과 관련한 시각자료 및 내용이 기술된 문헌은 안동 하회마을(9), 경주 양동마을(7), 제주 성읍민속마을(5), 아산 외암마을(5), 고성 왕곡마을(5), 영주 무섬마을(4), 성주 한개마을(2),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옥마을 후보 선정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한 한옥마을 사진 분포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속문화재 한옥마을(문화재보호법 기반)¹⁰⁾ 중 최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마을과 우수한 경관을 갖고 있고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옥마을을 후보로 선정하였다.

민속문화재 한옥마을 중 고성 왕곡마을, 성주 한개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의 인터넷 사진정보 분포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선정된 영주 무섬마을을 비롯하여 성주 한개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의 마을 경관이 수록된 관련 문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성 왕곡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총 4개 마을을 후보로 선정하고,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해 예비 선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답사 실시하였다.

[표 2-13] 한옥마을 후보 선정

문화재 범주	문화재 종류	지정일	한옥마을
마을 (문화재 보호법 기반)	국가지정 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1984 • 경북 안동하회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1984 • 제주 성읍민속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1984 • 경북 경주양동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2000 • 충남 아산외암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2000 • 강원 고성왕곡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2007 • 경북 성주한개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2013 • 경북 영주무섬마을(★)
	시·도지정 문화재	대구광역시 시도민속문화재 제3호	1995 •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 (★) : 인터넷 사진정보로 추출된 한옥마을 경관 이미지 수

* — : 관련 문헌에 다수 수록된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 □ : 후보로 선정된 한옥마을, 현장답사 대상마을

10) 「문화재보호법」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현장답사를 통한 한옥마을 최종선정

예비 후보로 선정한 4개 마을을 현장답사한 결과, 성주 한개마을은 현재 지중화사업(복원사업)이 진행 중으로 과년도에 우수한 경관사진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성 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총 3개 마을 선정하고 마을별 역사적·공간적 특징을 토대로 우수경관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한옥마을은 마을마다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그에 따른 형태와 구조, 색감 및 질감을 이룬다.

- (2014. 07. 21) 영주 무섬마을 현장답사
- (2014. 07. 22)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성주 한개마을 현장답사
- (2014. 07. 31) 고성 왕곡마을 답사

[표 2-17] 조사대상 한옥마을 특징

한옥마을	특징
강원 고성 왕곡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말에 함부열이 조선의 건국에 반대하여 은거한데서 비롯되며, 임진왜란으로 폐허화된 후 150여년에 걸쳐 형성된 마을 - 19세기를 전후하여 지어진 기와집들은 모두 강원도 북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양통집으로 구성됨. 이는 긴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구조로, 특히 부엌 앞 처마에 외양간이 있는 것이 특징. 이 집들은 원래의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자연경관 전통주택·농업위주의 생활 등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전체에 잘 지켜져 오고 있어 전통 민속마을로 의미가 있음
경북 영주 무섬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섬마을은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수도리(水島里)의 우리말 이름으로 삼면이 내성천과 접해있는 전형적인 물도리 마을로 마을 앞을 돌아나가는 내성천은 맑고 잔잔하며 산과 물이 태극 모양으로 서로 안고 휘감아 돌아 산수의 경치가 절경을 이룸 - 마을 내에는 해우당고택과 만족재고택 등을 비롯하여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口자형 가옥, 까치구멍집, 겹집, 남부지방 민가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양식을 갖춘 가옥이 있어 전통주거민속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대구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인흥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익점의 18대손 문경호가 터를 닦아 남평 문씨 일족이 모여 살던 곳으로, 원래 절이 있던 명당터를 구획하여 집터와 도로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집을 지음 - 대표적인 건물로는 수봉정사와 광거당·인수문고가 있음. 수봉정사는 세거지의 입구에 있는 정자로 정원을 매우 아름답게 꾸민 곳으로, 주로 손님을 맞고 일족의 모임을 열 때 사용하던 큰 규모의 건물임. 광거당은 문중의 자제들이 학문과 교양을 쌓던 수양장소이며 인수문고는 문중의 서고로, 규장각 도서를 포함한 책 1만여 권을 소장 중. 인수문고는 초기에는 작은 규모였으나 후에 크게 늘려지었고, 도서열람을 위한 건물도 따로 지음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정보” 재구성,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 한옥마을 경관 시각자료 수집

① 시각자료 범위 및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수경관 계획요소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옥마을 경관 관련 시각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옥마을 경관을 분석하였다. 시각자료는 한옥마을 경관 유형을 고려하여 마을별 역사적 특징과 공간설계논리가 잘 나타난 사진을 수집하였다. 또한 한옥마을 내 문화재급 한옥 또는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 개별한옥의 디테일 사진을 수집하였다.

② 시각자료 수집방법

한옥은 색의 대비가 극명하여 사진촬영 시 적정 노출 산정, 조리개 및 조명의 조절 등이 어렵고 각종 장비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연구진이 촬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옥사진 촬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작가가 보유한 자료의 구득을 통해 우수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시각자료는 현 시점에서 마을의 우수경관을 발굴·기록할 수 있도록 오래된 모습보다는 가급적 최근의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필요한 사진은 연구진이 직접 촬영하여 보완하였다.¹¹⁾ 수집된 시각자료들은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우수한 경관 사진을 마을별로 약 25점 씩 최종 선정하였다. 한옥마을 우수경관 시각자료는 마을의 역사적·공간적 특징이 잘 드러나고 경관 유형별 사진이 포함되도록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옥은 디테일한 모습이 나타나는 내·외부 투시경관, 부위별 경관 사진을 함께 선정하였다.



[그림 2-7] 한옥마을 경관 시각자료 예시

11) 본 보고서에 사용된 김철현 작가의 사진자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사용권이 있으며, 일부 사진자료는 연구진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것이다.

제3장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1. 고성 왕곡마을
2. 영주 무섬마을
3.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1. 고성 왕곡마을¹²⁾

1) 고성 왕곡마을 역사 및 현황

□ 마을 역사 및 현황

[표 3-1] 고성 왕곡마을 개요

마을명	고성 왕곡마을 (조선시대)
문화재 종목	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위치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입지	전원/ 농촌
지형조건	경사지
가로체계	나뭇가지형
지정 등록일	2000.01.07
규모	233필지/180,741.7㎡
가구 수	총 50가구/ 기와 30동, 초가 20동
풍수형국	행주형 ¹³⁾

12) 전문가활용을 통한 한필원 교수(한남대학교)의 원고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왕곡마을의 역사는 14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함씨들은 마을에서 18대째, 600년 이상 살고 있다. 왕곡마을은 양근(楊根) 함씨(咸氏)(강릉 함씨라고도 함)의 조상들이 은거지로 선택한 곳이다. 고려 말 공양왕의 충신으로 알려진 함부열(咸傅烈, 1371~1442)이 이성계의 조선왕조 건국에 반대해 왕곡마을 근처 고성군 간성을 금수리에 은거하면서 그의 손자 함영근도 마을로 들어왔다. 강릉 최씨들도 비슷한 시기에 이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해 왕곡마을은 두 성씨가 주도하는 양성마을이 되었다.

왕곡마을은 자연재해와 근현대기의 개발에서 비껴남으로써 삶의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마을이다. 왕곡마을이 속해 있는 고성군은 대체적으로 비와 눈, 바람이 많은 중부동안형 기후권에 속한다.¹⁴⁾ 왕곡마을은 두백산(頭伯山), 공모산(拱帽山: 골무를 닮았다고 해서 골무산이라고도 함), 순방산(脣防山), 제공산(濟孔山: 밭 넘어 산이라 해서 밭도산이라고도 함), 호근산(湖近山: 송지호 갯가와 닿았다 해서 갯가산이라고도 함) 등 다섯 개의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봉리라 불리운다.¹⁵⁾ 동해에 가까이 있으나 산들로 둘러싸여 밖으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마을 입구에 이르기 전에는 마을의 존재를 예상하기 힘들다. 5개의 봉우리는 겹치듯 어우러져 있어 해발고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길을 충분히 막아주어 외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임진왜란 때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 뒤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아 왕곡마을은 병화불입지(兵禍不入地: 전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라 일컬어진다.

왕곡마을의 가옥은 앞마당 전면에 담이 없고 대문도 없어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가옥과 가옥 사이에 비교적 넓은 텃밭이 있어 이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 특색이다.¹⁶⁾ 마을의 가옥은 중앙의 개울을 따라 형성된 마을 안길을 중심으로 배치되는데, 가옥의 전면에는 계단식 논을 비롯하여 너른 들이 형성되어 가옥의 경계가 분리된다. 이러한 가옥의 배치구성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은 마을 주민의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의 소득도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13) '행주형' 이란 물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배의 형상을 한 형을 뜻함, 문화콘텐츠닷컴(2012), '행주형(行舟形)', 「문화원형 용어사전」, 한국콘텐츠진흥원

14) 우리나라의 기후는 지역 특성에 따라 남해안형, 서안형, 내륙형, 동안형, 개마고원형 등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음. 고성지방이 속해 있는 동안형은 다시 남부동안형, 중부동안형, 북부동안형으로 나눌 수 있음. 고성지방은 동안형 기후구 가운데서도 비가 많고 바람이 많은 중부동안형에 속함, 최영철 외(2012),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강원도 고성군,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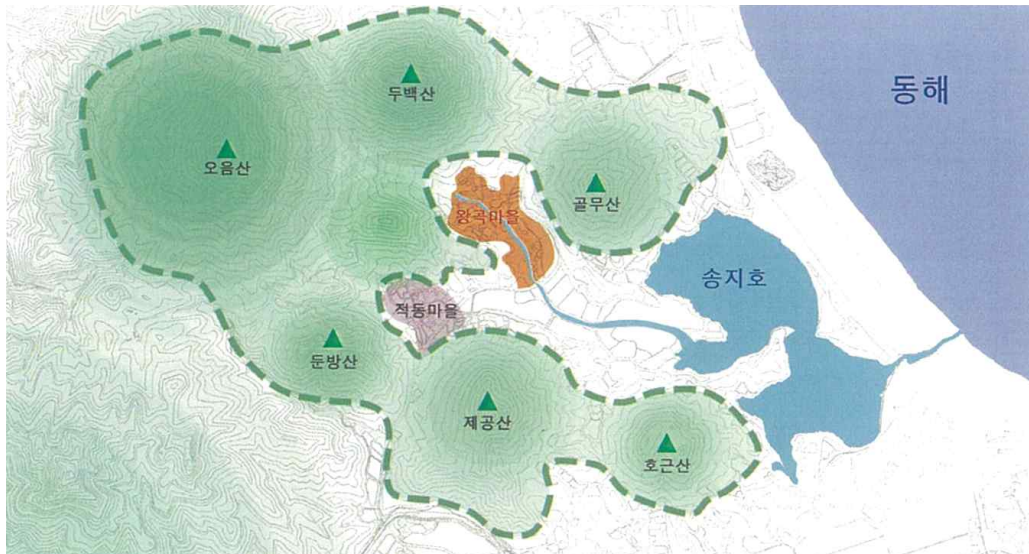
15) 최영철 외(2012),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강원도 고성군, p.80

16) ibid, p.91

마을 주민의 생활양식은 가옥의 공간구성에도 반영되어 마구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가옥에서 마구는 본채와 일직선으로 배치되는데, 팔작지붕의 본채 옆에 맞배지붕의 마구가 연이어 자리한다. 마구의 지붕 높이는 안채보다 낮아 마치 안채의 부속 건물처럼 보인다.

또한 가옥의 공간구성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대부분의 가옥들이 후면에 담을 두른 뒷마당을 갖고 있고, 정지(부엌)를 통해 다른 방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경사가 비교적 가파른 뒷마당은 폭이 매우 좁고 긴 형상을 가지는데, 이러한 폐쇄적인 뒷마당은 부엌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옥의 특징은 기후를 반영한 주거형태로부터 비롯된다. 마을 주민들은 뒷마당에 나무를 심고 담장을 둘러 그늘과 방풍을 유도하였는데, 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뒷마당의 차가운 기류가 가옥의 앞마당 쪽으로 이동하여 실내가 시원하게 유지되고 겨울철에는 뒷마당의 담장이 찬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비교적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외피면적이 작아 열손실이 적은 겹집의 형태를 갖는 왕곡마을의 가옥은 정지를 통해서 실내외를 드나들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겨울철 찬바람이 방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왕곡마을의 가옥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높은 굴뚝은 겨울철 강한 바람에 의해 굴뚝으로 바람이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그림 3-1] 고성 왕곡마을 형국

(출처: 최영철 외(2012),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보고서, 강원도 고성군, p.92)



[그림 3-2] 고성 왕곡마을 배치도 및 가옥 현황

(출처: 최영철 외(2012),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강원도 고성군, p.127 재구성)

[표 3-2] 고성 왕곡마을 가옥 현황 (출처: ibid, p.127 재구성)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1	함용균	11	함탁영	21	전정인	31	함석주	41	함재식	51	최종복
2	김유집	12	양근함씨 4/5세 효자각	22	함병식	32	정미소	42	신춘매	52	고성군수
3	함형진	13	함형찬	23	마을회관	33	함성식	43	함치균	53	최성희
4	이수업	14	함호근	24	신정렬	34	최준만	44	함상균	54	교회사택(장석근)
5	함형률	15	함대근	25	최현철	35	함형산	45	김세준		
6	김세정	16	함전평	26	최무성	36	함승분	46	함호식(함형길)		
7	함문균	17	박두현	27	전윤덕	37	함성균	47	전윤삼(전인택)		
8	함석원	18	함희석 효자각	28	최방웅	38	송월봉	48	최완희(최창손)		
9	함정균	19	함범균	29	김갑연	39	함형필	49	한경자		
10	함석영	20	함형존	30	윤종덕	40	정하기	50	박선종(최종명)		

2) 고성 왕곡마을 우수경관

① 자연의 품속에서 찾은 지속가능성

□ 주변의 다섯 산봉우리

일제강점기까지도 은거지의 모습을 유지해온 왕곡마을은 광복 이후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마을이 38선 북쪽에 있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시기에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왕곡마을은 광복 이후부터 휴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까지 북한 정권 아래에 있었다. 그 뒤에 휴전선이 동해안 쪽에서 갑자기 북쪽으로 휘어져 올라감에 따라 마을은 남한에 편제되었다. 6·25전쟁 때에는 마을에서 불과 36.7km 거리에 있는 월비산(月比山: 금강산 남동쪽의 산)에서 동부전선 최대의 격전이 벌어졌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351고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투는 한국전쟁사에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하나로 기록된다. 당시 격전지에서 후방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고성군 일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351고지로 접근하는 길인 7번 국도변의 마을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러나 7번 국도에서 불과 1.3km 안쪽에 있는 왕곡마을은 이렇다 할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가 작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마을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함포 사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불은 왕곡마을을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1996년 4월과 2000년 4월에 고성 일대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다. 2004년 3월에도 왕곡마을 인근의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바로 함부열이 은거했던 지역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1996년의 산불은 두백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산 중턱에 있던 당목인 소나무도 불태웠지만 다행히 주거지 바로 뒤에서 멈추었다. 마을사람들은 마을 형국이 물에 떠가는 배의 모양, 곧 행주형(行舟形)이라 화재를 면했다고 믿는다. 또한 공모산은 전쟁과 화재 같은 재난을 방지해주는 산이라고 믿는다.¹⁷⁾

이렇게 왕곡마을이 일련의 위기를 면하고 6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비결은 무엇인가?

성씨가 서로 다른 두 영역을 각각 1차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통합한 영역 곧 오늘날의 왕곡마을을 2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왕곡마을을 둘러싸는 산봉우리들을 이어보면 좀 더 큰 영역이 그려진다. 2차 영역을 둘러싸는 표고 100m 이상의 산봉우리들 다섯 개를 곡선으로 이으면 달걀 모양의 3차 영역이 드러난다. 그리고 3차 영역을 이루는 적동마을 뒷산을 순방산으로 바꾸고 적동마을 남서쪽 산봉우리를 추가하면 북서쪽으로 조금 더 확대된 4차 영역이 된다. 여기에는 용궁(龍宮) 김씨들이 모여 사는 오

17) op.cit., 한필원(2011), pp.459~462

봉2리 적동마을이 포함된다. 다시 북서쪽에 있는 오음산(五音山, 249m)까지 4차 영역을 확대하면 5차 영역이 된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산봉우리가 하나씩 추가되어 5차 영역의 경계는 일곱 개의 봉우리로 만들어진다.¹⁸⁾



'행주형 [行舟形]'은 물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배의 형상을 한 형을 뜻한다. 옛 선조들은 이런 형국의 땅에는 인물과 재화가 풍성하다고 여겼다.

[그림 3-3] 왕곡마을 풍수형국:행주형



[그림 3-4] 왕곡마을 전경

18) op.cit., 한필원(2011), p.464

3차에서 5차에 이르는 영역을 만드는 산봉우리들은 그것들로 둘러싸인 1·2차 영역을 마치 달걀의 노른자인 양 은밀하고 안전하게 숨겨준다. 송지호 양쪽에 있는 공모산과 호근산 사이는 조금 더 넓게 열려 있으나, 다른 산봉우리들은 서로 500~1,0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영역을 허점 없이 감싸고 있다. 북쪽과 서쪽은 특히 표고 200m 이상의 오음산, 순방산, 두백산이 삼각형을 이루며 가로막고 있어서 겨울철 찬바람이 차단되고 더욱 견고한 영역감이 조성된다. 이렇게 왕곡마을은 겹겹의 커로 이루어진 양파처럼 다섯 커의 영역들로 둘러싸여 있다. 왕곡마을의 형국을 행주형이라 하는데, 마을 안에서 배의 형상을 연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형도에서 마을을 둘러싸는 영역들을 분석해보면 3차에서 5차에 이르는 영역의 모습은 모두 영락없이 유선형의 배다. 이같이 뺨 두르는 산들로 겹겹의 영역이 형성되고 그 안에 거주지가 안전하게 숨겨진 환경조건은 왕곡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소다.¹⁹⁾ 주거지가 오래 지속되려면 무엇보다도 입지가 중요함을 왕곡마을에서 알 수 있다.

왕곡마을은 마을 영역이 높은 산들로 에워싸여 있기에 통과교통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것이 마을의 영역감이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지속되었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지금은 7번 국도에서 갈려나온 이차선의 포장도로가 왕곡마을 앞을 관통하지만 이는 근래에 나타난 변화로, 본래 2·3차 영역은 7번 국도에서 갈려나온 산길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마을 뒤 좁고 긴 골짜기는 물안골(무랑골)이다. 이 계곡의 물은 웬만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주거지 윗부분에서 두백산 옆에서 흘러내리는 몇 줄기의 작은 물길과 만나 하나의 큰 수로를 이루어 안길을 따라 주거지를 관통한다.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와 집에서 주로 빨래를 하지만 과거에는 이 수로에 공동빨래터가 있었다. 마을을 거쳐 마을 어귀를 빠져나간 이 수로의 물은 적동마을에서 내려온 물과 합쳐져 송지호로 연결된다.

수로가 주거지 중앙을 자유곡선형으로 관통하고 안길 또한 이를 따라 자유로이 곡선을 그린다. 전통마을에서는 대개 물길이 주거지의 경계에 놓이는데 그런 면에서 왕곡마을은 예외적이다. 그러나 물길의 북동쪽에 집들이 밀집해 있고 남서쪽에는 듽성듬성 있는 것으로 보아, 먼저 물길의 북동쪽에 주거지가 형성된 다음 택지가 부족하자 물길을 넘어 주거지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19) op.cit., 한필원(2011), pp.464~467

□ 은거지의 이미지

왕곡마을 입구에는 ‘동학의 빛 왕곡마을’이라는 기념비가 있다. 1889년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이 관의 눈을 피해 수개월간 왕곡마을에 있는 김함도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과 1894년 갑오년 9월, 동학군이 함일순가옥에서 10여 일간 머물며 전력을 가다듬은 것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애초에 은거지로 조성된 왕곡마을은 이렇게 근대기에도 은신처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영서로 통하는 진부령이나 미시령, 선유령 등의 길목에서 벗어나 있어 은신처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남북방향의 도로가 왕곡마을 앞을 지나갔으나 일제강점기에 동해안 쪽으로 7번 국도가 개설되면서 그 도로는 사라지고 마을은 통과교통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동해북부선 철도 역시 7번 국도와 나란히 달린다. 이렇게 해서 왕곡은 근대 이후에도 여전히 외진 곳으로 남았다.²¹⁾



[그림 3-5] 동학 상징 탑:
‘동학의 빛 왕곡마을’



[그림 3-6] 왕곡마을 위치도

(출처: 최장순(2008), 왕곡마을의 길과 민가와
공간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n.10, v.2,
p.126)

20) op.cit., 한필원(2011), p.469

21) 한필원(2011),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p.458

② 개체의 개별성과 군집의 질서(생활의 질서와 대표적인 한옥의 공간구성)

□ 앞마당, 사랑마당, 뒷마당

채 앞의 마당, 곧 앞마당은 담으로 둘러지 않고 대문도 없어 개방적이다. 사랑방 옆으로는 매우 작은 사랑마당을 조성한다. 사랑마당과 앞마당 사이는 미묘하게 구분할 뿐 담으로 차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본채 뒤의 뒷마당은 앞마당과 달리 담이 높이 둘러 폐쇄적인 마당으로, 집에서 가장 내밀한 곳이다.²²⁾ 뒷담은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주고, 바깥의 마을길로 뒷마당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해준다. 담이 침입을 막아줄 뿐 아니라 시선과 찬바람을 차단해 아늑한 뒷마당은 가장자리에 세운 옹벽의 형태에 따라 반달이나 사다리 모양이 된다. 집터가 경사지에 조성되면 뒷마당의 옹벽은 토압을 받는데, 옹벽은 직선일 때보다 활꼴일 때 흙이 미치는 힘을 더 잘 견딘다.

뒷마당은 앞마당과 차단되어 있으며 부엌과 안방을 통해서만 출입되는 여성의 공간이다. 본채 앞쪽에는 뒷마루가 없지만 뒤쪽에 뒷마루가 있는 집들이 많다. 뒷마루는 건물과 외부공간을 연결해주는 요소이므로, 뒷마당이 본채와 연결되어 활발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뒷마당은 상당히 넓어 그곳에 수도와 장독대를 설치하고 가사작업을 하며 꽃나물을 심고 화단을 꾸미기도 한다. 뒷마당을 조금 더 넓게 만들고 그 안에 부속채를 둔 집들도 많다.²⁴⁾ 함전평 가옥의 뒷마당에는 초가삼간 형식의 부속채가 있다. 과거 삼대가 한 집에 살 때는 이 부속채를 어린 자녀들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창고로 쓴다.

22) op.cit., 한필원(2011), p.472

23) op.cit., 한필원(2011), p.473

24) op.cit., 한필원(2011), p.473



함석영 가옥은 왕곡마을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가옥이 몰려 있는 두 갈래 길이 시작되는 곳에 자리하며 현재 민박집으로 활용되고 있다. 함석영 가옥은 왕곡마을의 대표적 가옥으로 대청의 뒤주와 광채, 굴뚝 등이 유명하다.

[그림 3-7] 함석영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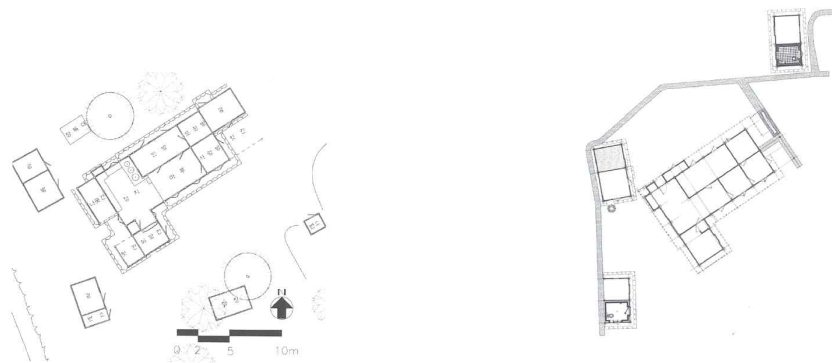
[그림 3-8] 김세정 가옥

□ 마당과 채의 연결

왕곡마을 집들의 특색은 집 앞 마당에 담을 두르지 않고 대문도 없다는 점, 채 앞에 툇마루가 없고 문이 기단 위로 높이 설치되어서 그리로 드나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마구라고 불리는 외양간이 서로 별도의 채로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몸채로 되어 있다.²⁵⁾

안채와 사랑채가 붙어 하나의 본채를 이루고, 앞마당과 사랑마당이 연결되어 있지만 뒤섞이지 않고 미묘하게 분절되어 있다. 서로 다른 채에 속하는 안방과 사랑방 사이에는 문이 없이 막혀있다. 그래서 안방과 사랑방은 마루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만 연결된다. 다른 방들은 정지, 곧 부엌을 통해 집 밖과 연결되지만, 사랑방은 그 측면에 기단이 조성되거나 툇마루가 설치되어 사랑마당을 통해 별도로 출입한다.²⁶⁾ 그리고 사랑방의 측면 툇마루 아래에 함실²⁷⁾이 있어서 사랑방은 별도로 난방이 된다.

본채의 방들은 성격에 따라 앞마당이나 뒷마당 또는 사랑마당에 면한다. 사랑방은 사랑마당과 앞마당에 동시에 면하고, 공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의 마루는 앞마당에, 안방과 도장²⁸⁾같은 사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은 뒷마당에 면한다. 정지, 곧 부엌만은 앞뒤 마당에 모두 면해 집을 이루는 공간들을 연결하고 아우른다.²⁹⁾



(a) 1999년 최방웅가옥 배치도

(b) 2012년 최방웅가옥 평면도

[그림 3-9] 최방웅 가옥 배치도

(출처: op.cit. 최영철 외(2012), p.217)

25) op.cit., 한필원(2011), pp.469~471

26) op.cit., 한필원(2011), p.471

27) 함실은 아궁이가 있는 간이 부엌을 말한다.

28) 도장은 곡물 저장공간을 말한다.

29) op.cit., 한필원(2011), p.474



최방옹 가옥은 앞마당에 담을 두르지 않고 대문도 없다.

[그림 3-10] 최방옹 가옥



[그림 3-11] 함석영 가옥

□ 겹집

왕곡의 집들 대부분은 고 함호근 씨의 네 형제가 지었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주택을 칸이 집의 깊이 방향(앞뒤 방향)으로 한 켠로 설치된 홑집과 두 켠로 설치된 겹집으로 나누어 볼 때, 왕곡마을에 있는 집들은 모두 겹집이다. 겹집은 외피면적이 작아 열손실이 적으므로 열환경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정지(부엌)와 마루 사이에 칸막이가 없고 정지와 마구 사이에는 구유만 설치되어 있어서 정지는 마루 및 마구와 공간적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정지의 아궁이와 부뚜막에서 나오는 온기가 마구와 마루로 전달된다. 또한 정지를 통하지 않고 함실이 있는 측면을 통해 출입하는 사랑방을 제외하면, 모두 정지를 거쳐 방으로 출입한다. 마루와 사랑방 앞쪽에 외부로 통하는 개구부가 있으나 그것은 출입을 위한 문이 아니라 밖을 내다보거나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이다. 기단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높이가 60~70cm가 되는데도 디딤돌이 없는 것을 보면 기단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지를 통해 출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지를 통해 실내로 드나들면 겨울철 찬바람이 방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일이 적어진다.³⁰⁾

여름철에는 겹집이 환경적으로 불리하다. 두 켠의 공간(방)이 앞뒤로 겹쳐 있으므로 맞바람이 통하지 않아 홑집에 비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엌 앞에 마구가 있어서 부엌에서도 맞바람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당의 구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다. 여름철 한낮에 뒷마당은 그들이 지므로 주위보다 기온이 낮아진다. 반면, 개방적인 앞마당은 내리쬐는 태양 복사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방문을 열어두면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방들을 통해 앞마당 쪽으로 이동한다. 바람은 안방의 작은 뒷문을 지나며 속도가 빨라져 안방 앞의 마루 쪽으로 분다. 이렇게 기온 차이로 일어난 맞바람으로 인해 방 안은 시원하게 된다.³¹⁾

대부분의 집들은 일자형 본체에 마구를 직각방향으로 덧붙인 ㄱ자형 집이다. 돌출된 마구 부분은 북서쪽, 곧 집 앞에서 보아 왼쪽에 있는 가옥이 많다. 이런 형태는 겨울철 태양열을 더 많이 획득하고 북서풍을 차단할 수 있어 에너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돌출 부분을 오른쪽에 둔 집들은 대개 안길의 남서쪽에 있는데, 돌출 부분으로 안길 쪽을 막아 앞마당을 좀 더 아늑하게 만들었다.³²⁾

30) op.cit., 한필원(2011), p.476

31) op.cit., 한필원(2011), pp.476~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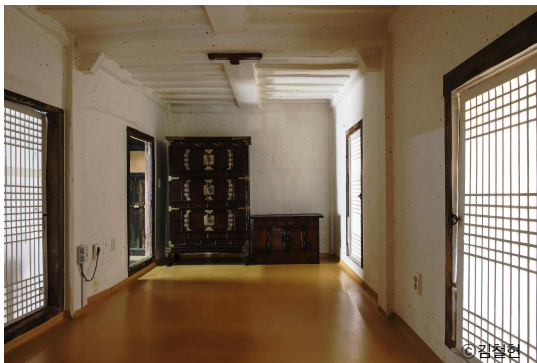
32) op.cit., 한필원(2011), p.478



©국가한옥센터

판벽과 널판문이 집 전체를 두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어 지은 공간의 지붕처리와 마무리다. 어색한 듯 하면서도 어울린다.

[그림 3-12] 함석영 가옥



©김철현

[그림 3-13] 함석영 가옥



©김철현

[그림 3-14] 김세정 가옥

□ 외양간(마구)의 다양한 디자인

함탁영가옥에서는 예외적으로 마구가 본채와 일직선으로 배치되었다. 집터가 주거지의 가장 뒤쪽 경사지에 좁고 길게 조성되어서 그런 대지에 적응하기 위해 집을 일자로 길게 구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앞마당의 공간감이 약해지고, 팔작지붕의 본채 옆에 맞배지붕의 마구를 붙임으로써 지붕의 연결이 어색해졌다.

왕곡마을의 집들은 모두 겹집 형태로 뽕뽕하게 생겼고 대개 팔작 기와지붕을 이고 있어서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몸채보다는 마구를 기준으로 집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몸채 부분과 달리 마구의 지붕은 집집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왕곡마을의 마구에서는 가적지붕(한쪽으로 경사지게 덧댄 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 한옥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지붕 형식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의 공간이 아닌 소의 공간으로 집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 다양한 굴뚝의 위치와 디자인

왕곡마을의 주택들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굴뚝이다. 토담 쌓는 방식으로 탑처럼 만들어진 굴뚝들의 크기와 중량감은 웬만한 봉수대와 맞먹는다. 굴뚝을 높이 설치한 것은 마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굴뚝으로 바람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형적으로 강조된 굴뚝은 왕곡마을의 경제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모두들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했기에 높고 큰 굴뚝을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주저 없이 드러냈으리라.³³⁾

왕곡마을의 굴뚝 디자인은 모두 조금씩 다르고 각기 특색이 있다. 돌과 흙으로 쌓아 담과 하나가 되고 팔작지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박두현가옥의 굴뚝같이 조화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함세균가옥의 굴뚝같이 옛 산성의 봉수대처럼 단순한 형태로 쪽 뻗어 올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도 있다. 함세균가옥의 것은 기와를 겹겹이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꼭대기에 올린 잘생긴 장독이 마치 봉화의 불꽃같다. 훌쩍하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건강한 모습의 이 굴뚝은 왕곡마을 굴뚝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굴뚝은 이렇게 상징성과 조형성을 가질 뿐 아니라 영역을 나누는 공간구성 요소의 역할도 한다.³⁴⁾

33) op.cit., 한필원(2011), p.489

34) op.cit., 한필원(2011), p.489



[그림 3-15] 함범균 가옥 외양간(마구)



[그림 3-16] 김유집 가옥 외양간(마구)



[그림 3-17] 함형찬 가옥 골뚝



[그림 3-18] 함형찬 가옥 골뚝

③ 마을생활의 논리

□ 세 곳의 마을입구

왕곡마을에는 세 곳에 입구가 있다. 마을 앞쪽 외곽을 지나는 큰길에서 안길이 갈라져 나온 지점에 있는 남동쪽 입구, 소나무가 뺨뺨이 심기고 가까이에 마을의 중요한 상징물인 ‘양근 함씨 4세 효자각(楊根咸氏四世孝子閣)’을 설치한 북동쪽 입구, 그리고 인접한 적동마을로 이어지는 남서쪽의 입구 등이다. 앞의 두 곳은 마을의 주입구로, 마지막 것은 부입구로 볼 수 있다.

대등한 두 곳의 마을입구는 마을에 두 영역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주거지의 남동쪽에서 두백산을 향해 올라오는 안길은 ‘함희석(咸熙錫, 1845~1918) 효자비’ 부근, 곧 북동쪽에서 내려온 마을 접근로가 안길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물안골을 향해 서쪽(왼쪽)으로 방향을 조금 튼다. 이 또한 두 개의 영역을 암시한다. 왕곡마을은 주거지 중앙, 두 마을길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남·북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북쪽 영역에는 양근(강릉) 함씨들이, 남쪽 영역에는 강릉 최씨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다. 이로부터 과거에는 북쪽 영역은 금성마을로, 남쪽 영역은 왕곡마을로 그 이름도 달랐다.

□ 마을회관과 오봉교회

마을의 공동시설은 마을생활의 중심 공간인 마을회관과 농업 관련 시설이다. 이것들은 모두 남동쪽 입구에서 시작해 물 안골로 이어지는 안길의 오른쪽³⁵⁾에 면해 있다. 공동시설은 1960년대에 마을 방앗간을 갖추었고 1970년대에는 상당히 큰 농협창고를 지었으며, 1990년대에는 주거지 안쪽에 수확한 벼를 말리는 건조장을 설치했다. 마을입구 쪽부터 점차 마을 안쪽으로 공동시설을 지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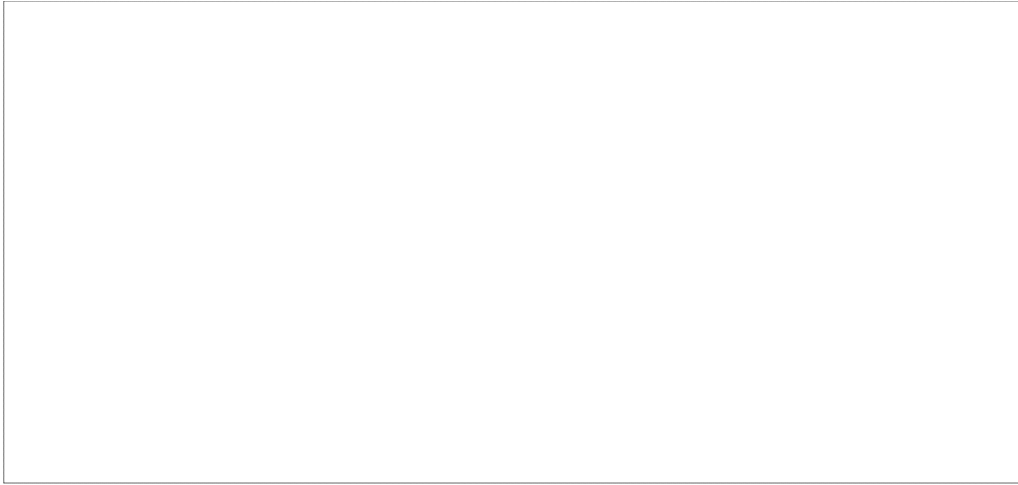
마을회관은 본래 2층 양옥이었으나 왕곡마을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해인 2000년에 그것을 철거하고 한옥형 마을회관을 지었다. 마을의 다른 많은 집들과 마찬가지로 기단 위에 앉은 팔작지붕 집이다.³⁶⁾ 마을 전체의 행사 대부분을 이 마을회관에서 한다.

농협창고는 마을회관과 마당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었다. 마을 공동의 물건은 면적 165㎡(50평)의 농협창고에 보관되었다. 이른바 새마을 양식으로 지어졌던 농협창고는

35) 마을의 입구를 기준으로 함

36) op.cit., 한필원(2011), p.491

2007년 철거되고 그 자리는 관광객을 위한 체험장과 주차장으로 쓰인다.



[그림 3-19] 왕곡마을 안길



양근 함씨 4세 효자각은 마을 안길에서 한고개로 넘어가는 길이 끝나는 자리 좌측에 있으며 좌측에 함탁영 가옥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입구가 한고개를 넘어 진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마을 입구에 자리한 모습이 되었다. 함성옥을 비롯한 인흥, 인흥, 덕우, 희률 등 양근함씨 4세에 걸쳐 5호자가 모두 단지하여 부친의 생명을 연장하는 보기도문 효행을 실천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1820년 효자비를 건립,' 사세오효자각 '이라 명명하였다.

[그림 3-20] 양근 함씨 4세 효자각

2. 영주 무섬마을

1) 영주 무섬마을 역사 및 현황

□ 마을 역사 및 현황

[표 3-3] 영주 무섬마을 개요

마을명	영주 무섬마을 (조선시대)
문화재 종목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文殊面) 수도리(水島里)
입지	전원/ 농촌
지형조건	평지
가로체계	나뭇가지형
지정 등록일	2013.08.23
규모	669,193㎡(214 필지)
가구 수	53가구/ 전통가옥 36호, 기타 17호('13 기준)
풍수형국	행주형 ³⁷⁾

무섬마을은 17세기 중반 조선 중기에 반남박씨(朴燧)와 선성김씨(金臺)가 입향한 이래 현대까지 맥을 이어온 집성촌으로써 유서 깊은 전통마을이다. 1666년 박수가 무섬마을에 터를 잡고 박수의 손자 대에 김대가 마을에 장가를 들어와 두 가문이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³⁸⁾ 현재 무섬마을의 중앙부에는 박씨가 다수 살고 있으며 김씨는 마을의 위쪽과 아래쪽에 주로 살고 있다. 무섬마을은 53가구('13 기준)에 약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가옥 가운데 36동이 전통가옥이고 그 중 16동은 역사가 오래된 조선시대 후기의 사대부 가옥이다. 마을 내에는 경상북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해우당고택, 만죽재고택 등을

37) '행주형' 은 물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배의 형상을 한 형을 뜻함, "행주형(行舟形)",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38) 박수는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박창반(1669-1742)이 선성김씨 문중 김윤일의 딸과 혼인하고, 딸도 선성 김씨 김범석에게 출가를 하였음. 또한 그는 손서인 김대를 불러들여 같은 동네에서 살도록 하였으며, 이후 김 대는 무섬마을 입향조가 됨. 신치후(2004), 「영주 무섬마을 양반주택의 건축적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165

비롯하여 □자형 가옥³⁹⁾, 까치구멍집, 겹집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양식을 갖춘 가옥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전통주거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⁴⁰⁾

무섬마을은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수도리(水島里)의 우리말 이름으로⁴¹⁾, 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내성천과 접해 있고 강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의 형상을 이루는 전형적인 물도리 마을이다. 강과 접해있는 대지는 평지로 조성되어 있고 동쪽 뒤편으로는 소나무, 참나무 위주의 자연구릉지가 발달되어 마을은 풍수지리학적 측면에서 행주형국(行舟形局)을 이룬다. 이러한 자연환경 및 입지조건으로 인해 마을에서 주거지는 서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지 전면은 내성천을 따라 넓은 은백색의 백사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마을에는 경작지가 거의 없다.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냇가에 나무 기둥을 박아 만든 외나무다리를 통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한다. 현재는 수도교라는 현대식 다리가 놓여 있으나 과거에 외나무다리는 유일한 바깥세상과의 통로였다. 외나무다리는 고향의 정취와 애환 어린 추억을 함께 맞볼 수 있는 곳으로 무섬마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마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무섬마을의 가옥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까치구멍집, 겹집 형태의 가옥이 다수 지어졌다. 용마루를 짧게 하고 좌우 끝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까치가 드나들만한 구멍을 낸 까치구멍집은 주로 폐쇄적인 겹집에서 나타나며 산간지역에 분포한다. 이러한 까치구멍집은 평지인 무섬마을에 적응하면서 모습이 변모하게 된다. 무섬마을의 까치구멍집은 가옥에 툇마루를 두어 시원한 개방감을 주거나 마구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사랑방이 자리하는 등 일반적인 까치구멍집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가진다.

무섬마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마을이다. 일제 강점기 시 뜻있는 주민들에 의해 건립된 무섬마을의 아도서숙(亞島書塾)은 초기에는 주민에게 한글과 농업기술을 교육하던 공간이었으나, 이후 항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독립의식을 일깨우는 장소로 사용되었다.⁴²⁾

39) 무섬마을의 ‘□자형 가옥’은 입향조가 마을에 들어와 건립한 166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지어졌으며 이는 마을의 역사가 30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치후(2004), 「영주 무섬마을 양반주택의 건축적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161

40) ‘영주 무섬마을’, 「문화재청」, <http://www.cha.go.kr>

41) ‘영주 무섬마을’, 「문화재청」, <http://www.cha.go.kr>

42) 무섬마을의 주민교육기관이자 공회당(公會堂)인 아도서숙은 1928년에 세워졌으며 일제 강점기 때 항일운동의 거점이 된 곳으로 선비정신, 항일독립운동정신을 상징한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그림 3-21] 무섬마을 배치도
(출처: “무섬마을 소개”, 「무섬마을」, <http://www.무섬마을.com>)

[표 3-4] 영주 무섬마을 가옥 현황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1	만죽재 고택	7	김용진 가옥	13	박종우 가옥
2	김두한 가옥	8	김재영 가옥	14	박천립 가옥
3	김제은 가옥	9	해우당 고택	15	김재진 가옥
4	김수영 가옥	10	김기한 가옥	16	김규진 가옥
5	김한범 가옥	11	김위진 가옥	17	김무병 가옥
6	김덕진 가옥	12	김익진 가옥	18	김정규 가옥

2) 영주 무섬마을 우수경관

① 풍수지리에 따른 마을공간(섬마을 입지 및 공간구조)

□ 강·산과 마을의 입지 및 연결구조

무섬마을은 다른 전통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무섬마을은 지리적인 위치상 내륙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태백산과 소백산 끝자락의 9개 골짜기가 모이는 영주시 남쪽에 위치한다. 길게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은 무섬마을에 이르러 서에서 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마을을 감싸고 흘러든다. 무섬마을은 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북쪽의 서천에서 갈라진 내성천과 접해있으며 강이 마을을 휘감고 돌아가고 있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섬과 같은 형상을 연출한다. ‘무섬마을’이란 이름의 뜻도 물섬에서 변화된 음(音)과 수도(水島)가 조합되어 지어졌다.⁴³⁾ 강과 접해 있는 대지는 평지로 조성되어 있고 마을의 동쪽은 소나무, 참나무 위주의 넓은 자연구릉지가 발달되어 풍수지리학적 측면에서 행주형국(行舟形局)을 이룬다. 이러한 자연환경 및 입지조건으로 인해 마을에서 주거지는 서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강을 바라보며 배치되어 있다.

무섬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한다. 초기에 마을 사람들은 냇가에 나무 기둥을 박은 외나무다리를 통해 왕래하였고 이후 시멘트 다리가 놓였으나 1983년 홍수에 유실되었다. 이전에는 마을 앞 논다리, 술도가 집으로 이어지는 도가다리, 내성천과 영주천이 합쳐지는 지점의 합수다리 등 3개나 났다고 한다.⁴⁴⁾ 외나무다리는 무섬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로 각 집안에서 나무를 추렴해서 세워졌으며, 고향에 대한 정취와 애환 어린 추억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과거에 무섬마을로 시집오는 처녀들은 외나무다리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청년들은 다리를 건너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나무다리는 현재와 미래, 죽음과 삶을 이어주는 다리로도 여겨졌으며 무섬마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

무섬마을에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우물이 없다. 개척 초기 당시 무섬마을의 주민들은 잦은 홍수 경험으로 인해 우물을 뚫으면 마을이 가라앉는다고 믿었다. 이에 마을 안에 우물을 만들지 않고 빗물을 모아두거나 강에서 식수를 얻었다. 또한 조상의 신위가 물에 떠내려갈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묘(家墓)를 설치하지 말도록 이르게 했다고 한다.⁴⁵⁾

43) op. cit. 신치후(2004), p.162

44) 고두현 외(2014), 「한국문화유전자지도」, “영주 무섬마을”, 스토리하우스, p.166



[그림 3-22] 무섬마을 전경



무섬마을의 외나무다리는 장마가 오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해마다 다리를 다시 놓았다고 한다. 현재 외나무다리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의 한 곳 선정되어 있으며, 영주시에서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9월 말경 외나무다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3-23]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45) op. cit. 신치후(2004), p.164

② 자연을 끌어들이는 주거공간

□ 기후가 반영된 주거양식 : 겹집, 까치구멍집

무섬마을의 주거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수원리에 따라 강을 바라보며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주거의 후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집들이 남향이 아닌 이유는 강과 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함이라고 한다.⁴⁶⁾ 전통 풍수에서 후면의 산수는 바람을 막아주고 가옥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며, 집 앞의 강은 산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땅의 기운을 모으고 땅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무섬마을의 가옥의 형태는 각 세대의 가족 수와 경제력에 따라 □자형 가옥, ㄱ자형 가옥, ㄷ자형 가옥, ㅡ자형 가옥 등으로 결정되었으며, 비교적 부유하고 가족의 수가 많은 경우 □자 가옥에 거주하였다.⁴⁷⁾ 무섬마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가옥은 입향조인 박수가 마을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은 만죽재 고택(1666년)으로, □자형의 기와집이다. 이후 혼인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나자 박수는 새 가옥을 지어 자식들을 분가시켰고, 이에 따라 점차 가옥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무섬마을의 가옥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까치구멍집, 겹집의 형태의 가옥이 다수 지어졌다.⁴⁸⁾ 까치구멍집은 용마루를 짧게 하고 좌우 끝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까치가 드나들만한 구멍을 낸 집의 형태를 뜻한다. 이렇게 합각부분에 구멍을 낸 가옥의 형태는 강원도·경북·전북 등 주로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 분포하며 주로 폐쇄적인 겹집⁴⁹⁾에서 나타난다. 겹집은 외부환경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형태로, 봉당⁵⁰⁾ 앞에 대문을 달고 봉당을 폐쇄 가능하게 하여 외부환경으로부터 추위와 안전을 확보한다. 겹집은 가옥 안에 모든 생활공간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부엌과 마구가 안채로 들어와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까치구멍을 갖고 있는 겹집에서는 까치구멍을 통해

46) 신광철(2010), 「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한문화사, p.276

47) op. cit. 신지후(2004), p.162

48) 무섬마을의 기후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한난의 차가 매우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갖는다.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겨울이 되면 극도로 공기가 건조하고 습도가 저하되어 체감적으로는 습한 지방보다 추위를 더 심하게 느낀다.

49) '겹집'은 용마루 아래 각 공간을 2줄로 배치한 집을 뜻한다.

50) '봉당'은 주택 내부에 있으면서 마루나 온돌을 놓지 않고 바닥면을 흙이나 강회·백토 등을 깔아 만든 공간을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김재진 가옥은 초가이기는 하나 사랑방 문 아래에 쌍사를 넣은 머름을 시설하여 격을 높였다. 가옥의 전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칸 뒷마루는 폐쇄적인 일반적인 까치구멍집과는 달리 시원한 개방감을 준다. 즉 오른쪽 반은 까치구멍집, 왼쪽 반은 일자형 초가가 결합된 집이다. 김재진 가옥은 산간의 폐쇄적인 까치구멍집이 평지의 개방적인 일자형의 초가와 만나 변형된 모습을 보인다.

[그림 3-24] 김재진 가옥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벽으로 막혀있던 까치구멍집은 연기와 냄새의 배출을 위해 합각부분을 막지 않고 틈워 놓았다.

[그림 3-25] 박천립 가옥 합각(까치구멍)



김규진 가옥의 평면은 까치구멍집의 초기 변형단계를 보여준다. 김규진가옥은 마구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사랑방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3-26] 김규진 가옥

부엌에서 생기는 연기를 내보냈다. 농경사회였던 과거에는 가축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으며, 이러한 선조들의 가치관이 가옥의 공간구조에도 반영되었다.

무섬마을의 가옥은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하던 까치구멍집이 평지에 적응하면서 변모하여온 모습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까치구멍집과 달리 무섬마을의 까치구멍집은 가옥에 툇마루를 두어 시원한 개방감을 주거나 마구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사랑방이 자리하는 등 산간지역의 폐쇄적인 까치구멍집이 평지의 개방적인 초가와 만나 변형된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무섬마을의 가옥은 사랑채가 측면으로 돌출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랑채 앞면에는 툇마루와 사랑마루가 설치되어 주로 전(田)자형의 공간구조를 가지는 겹집과 다소 다른 형태를 띤다.

김규진 가옥⁵¹⁾은 무섬마을의 오른쪽 아랫마을에 위치한 남서향 집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까치구멍집이다. 원래는 초가로 된 까치구멍집이었으나 지붕개량사업으로 외형이 변모되어 현재는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⁵²⁾ 공간배치를 살펴보면 봉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사랑방, 우측에 정지(부엌)가 있고 후면에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에 옷방⁵³⁾, 우측에 안방이 위치한다. 대청마루를 통해 세 개의 방(사랑방, 옷방, 안방)으로 모두 통할 수 있으며, 대청의 후면에 문이 있어 앞뒤로 통한다. 사랑방 양쪽 여단이 세살문을 달고 앞쪽에 쪽마루를 깔아 외부로 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방 우측에도 돌출된 쪽마루가 있어 외부로 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규진 가옥은 기후를 반영한 공간구성을 보인다.

김위진 가옥⁵⁴⁾은 겹집의 형태를 가지며 정면 5칸, 측면 5칸 반의 ㄱ자형 기와집이다. 건물 전면의 사랑채는 팔작지붕의 지붕구조를 가지며 사랑방 좌측과 전면에 사랑마루가 돌출되어 있다. 사랑채가 측면으로 돌출된 형태는 안채를 앞마당으로부터 조금 더 시각적으로 가려주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사랑마루 3면에는 판벽을 설치하여 마루방으로 꾸미고 사랑마루와 사랑방 앞에 툇간을 시설하고 난간을 둘러 개방감을 주었다.⁵⁵⁾ 안채는 봉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사랑방, 우측에 마구가 위치한다. 중문을 들어서면 1.5칸 규모의

51)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61호로 지정되어 있다.

52) 1975년 시멘트 기와를 얹어 까치구멍이 없어졌으나, 내부의 시설은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영주 수도리 김규진가옥”, 『문화재청』, <http://www.cha.go.kr>

53) ‘옷방’은 주로 안살림에 필요한 살림도구들을 넣어두는 방을 뜻하며, 전통가옥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54)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60호로 지정되어 있다.

55) “영주 수도리 김위진가옥”,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그림 3-27] 김무병 가옥 안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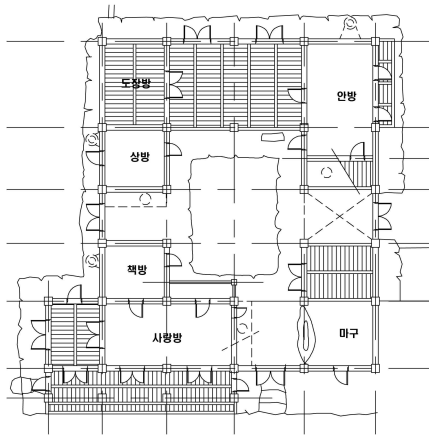
층고가 낮은 부엌과 외양간은 상부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고미다락을 만들어 추수한 곡식, 생활용품의 보관소로 활용했다.

[그림 3-28] 김정규 가옥 부엌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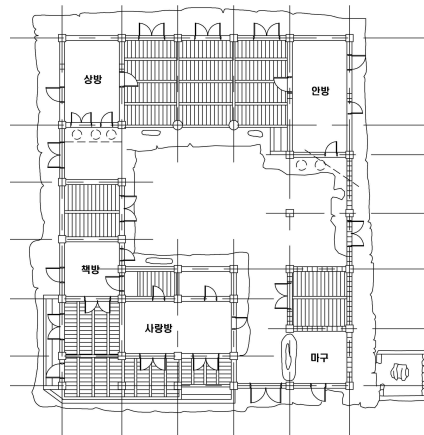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마루가 깔린 도장방⁵⁶⁾, 우측에 안방이 자리하고 있다. 도장방 앞쪽으로는 상방과 부엌이 사랑방 뒤의 중방과 연결된다. 안방의 앞쪽으로는 정지(부엌)와 고방을 사이에 두고 전면의 마구와 연결된다. 안방의 우측에는 바깥으로 돌출된 쪽마루가 있어 외부로 통할 수 있다. 이러한 쪽마루를 통해 안방과 도장방, 상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며 안방에서 마루와 봉당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대청마루의 후면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이 있어 앞 뒤 양쪽이 통하며 여름철에는 앞면과 후면의 창을 열어 환기에 유리하게 하고 겨울철에는 창을 닫아 외부로 열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 향에 따른 주거공간 구조

무섬마을의 가옥은 사면이 벽체로 막힌 겹집이지만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문과 후면의 대청마루의 문이 직선상에 놓여 바람이 통하는 구조로 되어있고 안방 및 사랑방 외부에도 문이 설치되어 있어 환기에 유리하다. 안방은 대부분 햇빛이 잘 드는 남동쪽, 서동쪽에 위치하고 가옥의 우측에 자리한다. 안채의 후면에는 가사공간인 좁고 긴 형태의 뒷마당이 조성되어 있으며 뒷마당을 돌담이 감싸고 있다. 안채의 대청마루에서 바깥의 열린 공간인 뒷마당과 돌담의 경치를 바라보면 따스하고 아늑한 섬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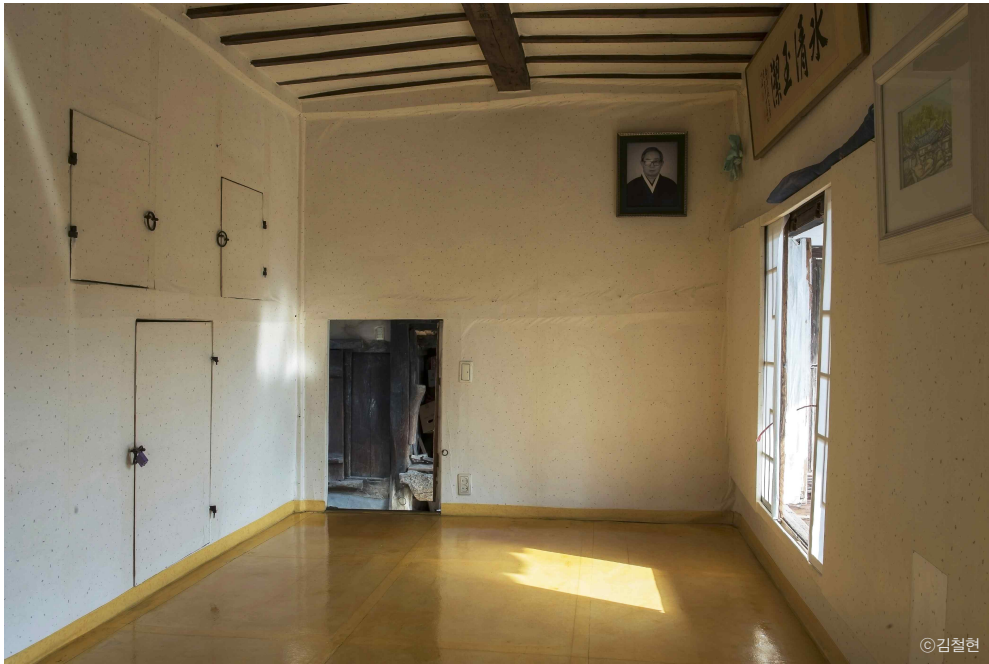


[그림 3-29] 김위진 가옥 평면도
(출처: 신치후(2003), p.33)



[그림 3-30] 김재영 가옥 평면도
(출처: 신치후(2003), p.30)

56) '도장방'은 생활도구, 곡식류 등을 주로 보관하는 방을 뜻한다.



[그림 3-31] 김위진 가옥



김규진 가옥은 가옥의 규모에 맞는 가구를 배치하여 소박한 선비의 생활상을 연출하였다.

[그림 3-32] 김규진 가옥

③ 사회관계와 건축의 결합(살림집)

□ 사대부가옥 공간구조

무섬마을의 입향조인 박수(1641~1699)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지은 만죽재 고택과 고종 16년(1879) 의금부도사를 지낸 김낙풍 선생(1825~1900)이 지은 해우당 고택은 선비들의 격식 있는 가옥으로 사대부가옥의 전형적인 공간구조를 보여준다. 무섬마을의 가옥은 외부에서 사랑채와 안채로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고 사랑채가 부속실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분리되거나 가옥에서 돌출되어 있으며, 사랑방은 조망에 유리한 배치구조를 갖는다.

만죽재 고택은 무섬마을 내 가장 오래된 가옥⁵⁷⁾으로, 마을 내 중심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5칸, 측면 5칸의 규모의 ㄱ자형 기와집이다. 건립 당시에는 ㄷ자형 가옥이었으나 이후 별동으로 떨어져 있던 ㅡ자형 사랑채를 옮겨와 현재의 ㄱ자형으로 개축하였다.⁵⁸⁾

만죽재 고택의 전면을 바라보면 좌측면에 돌출된 사랑채가 눈에 띈다. 사랑채 전면은 낮은 기단 위에 원기둥을 세우고 툇마루에 계자각 헌함을 돌렸다.⁵⁹⁾ 사랑채는 오랑가로 격식을 높였으며 가옥에서 사랑채 부분만 독립된 팔작지붕이다. 사랑방의 좌측과 전면에는 사랑마루가 둘러져 있으며 좌측의 사랑마루 뒤쪽에 방을 두었다. 대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마구와 정지(부엌)이 나타난다. 정지는 안마당을 향하여 벽체 없이 개방되어 있고 우측면에 널문을 달아 외부로 통하게 하였다. 마구간 상부에는 정지에서 사용하는 다락이 시설되어 있으며, 정지 상부에는 안방에서 이용하는 다락이 있다. 안채로 들어서면 대청마루 3칸을 중심으로 좌측에 고방⁶⁰⁾, 상방, 문간이 연달아 놓여 있으며 우측에는 안방이 위치한다. 안방과 상방은 대청마루에서 반칸 정도 돌출되어 있다. 안방에도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문이 있어 대문을 통하지 않고도 각 방과 안마당으로 이동할 수 있다. 대청마루 상부는 사랑채와 달리 간결한 삼량가이며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기단은 강돌에 시멘트 회반죽으로 상면을 마감하였고 그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았다.⁶¹⁾

57) 만죽재고택은 반남 박씨 판관공파의 종가로 1666년에 지어졌으며 300여년이 된 고택이다. 보수 시 수키와와 암키와에 쓰인 글씨를 발견하여 지은 때를 정확하게 알게되었다. 신광철(2010), 「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만죽재」, 한문화사 p.279

58) 신치후(2003), 경북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주택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p.23

59) op. cit, 신광철(2010), p.279

60) 규모가 큰 집에서는 고방 대신 광이라 불리는 창고를 여러 곳에 배치하였으나, 규모가 작은 집에서는 안방과 부엌 가까이에 두고 채광과 환기가 잘되도록 하였다. 신광철(2010), 「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만죽재」, 한문화사, p.279



[그림 3-33] 만죽재 고택 사랑채



만죽재고택은 반남박씨 판관공파의 종가이자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으로, 조선 현종 때 박수가 무섬마을에 입향하면서 지었다.

[그림 3-34] 만죽재 고택 전경



만죽재고택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 주거 모양을 이룬다.

[그림 3-35] 만죽재 고택 안마당

61) op. cit. 신광철(2010), “만죽재”, p.279

해우당고택⁶²⁾은 마을 내 가장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교를 건너면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가옥이다. 해우당고택은 마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으로, 전면 6칸 측면 6칸의 ㅁ자형 기와집이다.

해우당고택은 겹집으로 전형적인 폐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종 때 의금부도사⁶³⁾를 지낸 권세가의 집답게 위엄과 기개가 돋보인다. 이 가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면의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된 큰사랑과 작은사랑이다. 특히 우측의 큰사랑채는 지반을 높여 원기둥을 세우고 뒷마루에 계자난간 현함을 돌려 정자처럼 누마루를 꾸몄다.⁶⁴⁾ 누마루⁶⁵⁾에는 ‘해우당(海愚堂)’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데 이는 홍선대원군의 친필 현판으로 집주인인 김락풍의 호이기도 하다. 큰사랑채는 작은사랑에 비해 남쪽에 더 가까우며 별도의 팔작지붕으로 꾸몄고, 나머지는 맞배지붕으로 이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사랑채의 모습과 사랑채를 두 개나 들여 집에 오는 손님을 맞은 것으로 보아 가옥의 위계를 알 수 있다. 작은사랑의 우측과 후면에 마루방과 중방을 연이어 두고, 큰사랑 우측에는 마루방을 들이고 마루방 뒤쪽에 빈소방 1칸을 두었는데 마루방과 빈소방은 가옥에서 우측으로 1칸 돌출되어 있다. 큰사랑 후면에는 책방을 두었으며 정지와 안마당 사이에는 벽장과 안채로 통하는 비밀통로 반 칸이 설치되어 있다. 마루방 뒤쪽에는 빈소방 1칸을 두었는데, 마루방과 빈소방은 ㅁ자형 평면에서 우측으로 1칸 돌출되어 있다.⁶⁶⁾ 사랑채 측면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대문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통가옥에서 안채와 사랑채는 대개 대각선상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우당고택은 안채와 사랑채가 직선형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고택이 마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랑채를 남쪽에 두기위해 자연스럽게 공간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대문을 통해 가옥으로 들어가면 답답하게 사면이 가려진 벽 사이로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상방, 우측에 안방이 나타나고 안방 앞으로 정지(부엌)와 고방이 연이어 배열된다. 정지는 벽체 없이 안마당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고, 정지와 고방 상부에 우물마루를 설치한 다락을 두었다.

62) 해우당고택은 김대의 셋째집 손자 영각이 1836년 건립하고 해우당 김낙풍이 1879년 중수하였다.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있다.

63) 의금부도사는 조선시대 권력의 가장 핵심부를 장악하는 자리로, 의금부의 5~6품 관리이다.

64) 신광철(2010), 「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해우당”, 한문화사, p.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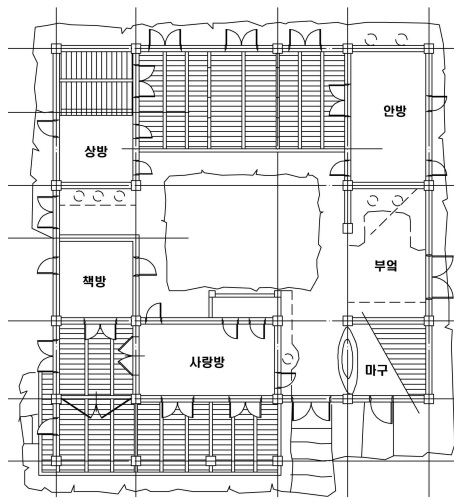
65) 누마루는 마루보다 더 높게 지어 마당을 흰하게 내려다볼 수 있게 한 공간이다.

66) ibid, p.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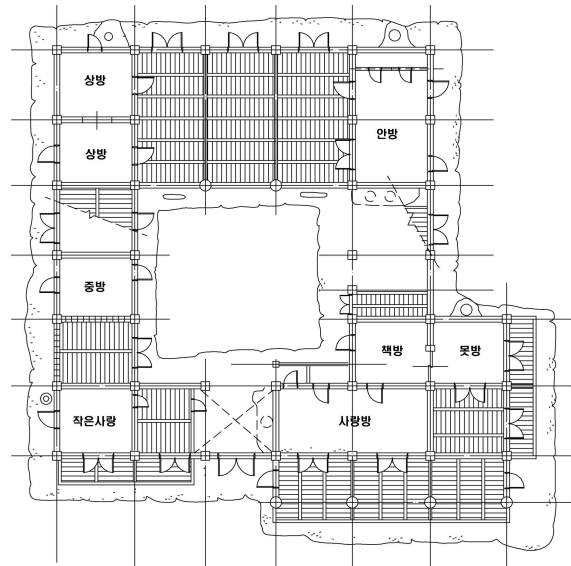
해우당고택의 공간배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넓은 대청마루 공간과 방의 이동에 유리하도록 절묘하게 배치된 수장 공간이다. 고택은 폐쇄적인 겹집이지만 마을 내 다른 가옥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되는 전면 3칸 측면 2칸의 넓은 대청마루 공간을 갖고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준다. 안마당과 정지 사이에는 벽장과 안채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하여 사랑방과 안채의 공간이동이 자유롭게 하였다.

해우당고택의 기둥은 안대청 전면과 사랑채 뒷기둥만 둘레를 둥그렇게 깎아 만든 원기둥이고, 나머지는 사각기둥으로 세웠다. 상부가구는 안대청이 오랑가이고, 큰사랑채가 전퇴 오랑가이다.⁶⁷⁾

이와 같이 해우당고택은 공간의 배치와 구조형식, 부재모양 등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계획된 건물로 무섬마을의 대표적인 가옥이다.



[그림 3-36] 만죽재 고택 평면도
(출처: 신치후(2003), p.23)



[그림 3-37] 해우당 고택 평면도
(출처: 신치후(2003), p.31)

67) 신광철(2010), 「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해우당, p.285



해우당 고택은 의금부도사를 지낸 해우당 김낙풍이 1879년(고종16)에 세운 ㅁ자형 가옥으로 앞쪽의 대문을 중심으로 큰사랑과 아랫사랑을 두고, 오른쪽의 큰 사랑은 지반을 높이고 두리 기둥에 난간을 돌려 누마루를 꾸몄다.

[그림 3-38] 해우당 고택 전경



[그림 3-39] 해우당 고택 안채 대청과 안



[그림 3-40] 해우당 고택 안채 대청

3.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1)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⁶⁸⁾ 역사 및 현황

□ 마을 역사 및 현황

[표 3-5]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개요

마을명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조선시대)
문화재 종목	대구광역시 민속문화재 제3호
위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3길 16 본리리
입지	전원/농촌
지형조건	평지
가로체계	격자형
지정 등록일	1995.05.12
규모	면적 11,701㎡
가구 수	11호(조선 후기의 전통가옥 9채, 정자 2채, 문고1채)
풍수형국	화룡고조형

남평문씨는 현재 대구의 성당동, 평리동 일대에 세거하다가 문익점의 18대 손인 인산재 문경호(1812-1874)가 19세기 초반에 세거지 인근에 자리를 잡은 뒤 1834년 지금의 광거당 자리에 용호재를 지으면서 개기를 알렸다.⁶⁹⁾ 마을은 원래 인흥사(仁弘寺)가⁷⁰⁾ 있던 자리에 터를 잡고 있었는데, 1856년 문정기 가옥의 터에 최초의 초가집⁷¹⁾이 지어지면서 주거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이 후 1940년에 거의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남평문씨는 인근 마을의 타성 소작인들을 써서 광작

68)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인흥마을이라고도 불린다.
69) 김일진(1997),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마을과 주거의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2, 용호재는 주택이 아닌 재실 건축이다.
70) 인흥사는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었던 사찰로, 1264년 오어사(吾魚寺)에 있던 일연(一然)이 옮겨와서 주지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전부 소실되었다.
71) 초가는 문경호의 차자인 문달규에 의해 건립되었다. ibid, p.2

농업을 경영하는 등 꾸준히 경제력을 향상시켜 왔으며, 같은 씨족의 상류층 주거지로 발전하여 왔다. 마을은 문씨일가의 상류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규모가 작은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남평문씨본리세거지로 불리운다.⁷²⁾ 현재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1975년 대구광역시 시도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어 오고 있다.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1940년경, 9호의 살림집과 재실(광거당), 정사(수봉정사), 문고(인수문고) 등이 건립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 마을은 비교적 작은 규모로, 전통마을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전법에 따라 집터를 구획하였다. 이에 따라 가옥, 마을안길 등이 질서정연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단지, 마을의 진입로와 광거당을 향한 길만이 틀어져 있다.

마을은 큰 도로와 마을의 진입로, 골목의 순서를 따라 주거에 진입하게 된다. 도로에 접한 부분에는 나지막한 돌담이 쌓여 있으며 마을 입구에는 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조산무더기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안길은 막다른 골목의 형태를 취하며 길들의 교차점은 직각으로 연결되어 T자형으로 나타난다.⁷³⁾ 마을의 주거는 안길의 끝에 위치하고 서로 연결하여 담으로 연결된다. 돌담은 다른 전통마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직각의 형태를 이룬다. 이러한 가옥의 배치와 담의 형태에서 한옥마을의 근대적 변화양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시대에 따른 근대적 면모는 가옥에 사용된 재료에서도 일부 반영되었다.⁷⁴⁾

마을의 대표적인 건물로는 수봉정사(수백당)와 광거당, 인수문고를 들 수 있다. 수봉정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로 정원의 꾸밈이 아름다워 손님을 맞고 문중 뿐 아니라 일족의 모임을 개최할 때 사용되었다. 광거당은 문중의 자제들이 학문과 교양을 쌓던 수양장소로, 용호재를 헐고 옛 터를 살려 정남향으로 지은 재실이다. 인수문고는 문중문고로, 현재 규장각 도서를 포함하여 약 8,500여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어 만권당(萬卷堂)으로도 불리운다.

72) op. cit. 김일진(1997), p.2

73) 김은정(2012), 「근대시기 씨족마을로서의 남평문씨본리세거지에 관한 건축적 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p.26

74) 1910년 벽돌조 공법이 대구 내 건축물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 초부터 적벽돌의 공급이 원활해졌다. 1920년대 말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건축물에는 이러한 근대적 변모에 따라 새로운 재료들이 건축물에 일부 적용된다. 정복임(2011),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구 읍성 내 북성로 가로구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석사학위논문, p.23



[그림 3-41]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배치도
(출처: 한옥문화원(2004), 한옥문화, 「남평문씨의 잘생긴 마을」, p.77)

[표 3-6]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가옥 현황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1	문시갑 가옥	5	문대갑 가옥	9	문보갑 가옥
2	문영갑 가옥	6	문근만 가옥	10	수봉정사
3	문유만 가옥	7	문승기 가옥	11	인수문고
4	문정기 가옥	8	문희지 가옥	12	광거당

2)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우수경관

① 정전법에 따른 격자형 배치

□ 배산임수 배치와 격자형 주거지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풍수지리학적 측면에서 배산임수의 전형을 갖고 있다. 마을은 비슬산⁷⁵⁾으로 태조산을 취하고 삼필봉을 소조산, 천수봉을 주산으로 함박산을 안산으로 취하며 회룡고조형국⁷⁶⁾을 띤다. 뒷산의 줄기와 마을 앞을 흐르는 인흥천의 모습이 절경을 이루며 마을이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인흥천은 비슬산에서 발원하여 작은 골짜기의 실개천이 모여 생긴 하천으로 ‘본리동의 남평문씨본리세거지와 읍 소재지를 지나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화원의 유일한 준용하천’이다.⁷⁷⁾



[그림 3-42]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마을 형국

75) 대구의 주산인 비슬산은 태백산맥의 남단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대한 산괴산으로 여러 고을에 걸쳐 수많은 자락들을 낳고 있다. 굽이굽이 소맥들이 뻗어 있고 그 사이와 기슭에 촌락이나 읍 이루어져 넓은 비슬산 권을 형성한다. 한옥문화원(2004), 「한옥문화: 남평문씨의 잘생긴 마을」, 한옥문화원, p.10

76)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은 조산에서 빙 돌아 내려와 몸을 튼용이 다시 조산을 바라보는 형세를 한 혈을 뜻한다.

77) 한옥문화원(2004), 「한옥문화: 남평문씨의 잘생긴 마을」, 한옥문화원, p.10

마을에서 광거당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정전법에 따른 격자형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남평문씨본리세거지만이 가지는 특색으로, 종래의 전통마을에서 나타나는 배치기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 한옥마을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 취락에 가옥이 첨가되면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여 구불거리는 안길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마을 형성과정 초기부터 계획된 구역에 따라 가옥들이 들어섰다. 1856년에 지금의 광거당 자리에 문달규가 최초의 초가를 지으면서 가옥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1910년 광거당이 건축되면서 지금과 같은 마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24-1933년 문시갑, 문영갑, 문정기, 문보갑 가옥이 건립되고, 이 후 문대갑, 문근만, 문유갑, 문희지 가옥이 지어지면서 30여년에 걸쳐 현재의 마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⁷⁸⁾ 마을은 격자형 필지구획으로 인해 입지에 의한 가옥의 위계성이 잘 드러나지는 않으나, 대문과 안길의 관계, 가옥의 규모, 채의 구성 등을 통해 씨족마을의 종법질서를 구현하고 있다.⁷⁹⁾ 마을 내 가옥은 대부분 남향 또는 남서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대구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마을배치의 특성이다.



[그림 3-43]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격자형 주거

78) op. cit. 김일진(1997), p.2

79) op. cit. 김은정(2012), p.252

□ 마을 안길과 담장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안길의 진행방향, 안길과 대문의 관계 등을 통해 가옥의 위계를 나타낸다. 종가인 문정기 가옥은 마을 중심부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골목과 직교하여 대문이 나타난다. 소종가인 문승기, 문대갑 가옥도 마을 중앙에 위치하며 넓은 대지를 갖는다. 마을 안길은 막다른 골목의 형태를 취하며 T자형으로 나타난다. 마을의 주거는 안길의 끝에 위치하고 서로 연접하여 담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통 한옥마을 담장은 낮은 토담으로 활처럼 휘어진 형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의 담장은 굴곡이 거의 없는 직선형의 형상을 가지며 폐쇄적이다.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비교적 높은 담으로 인해 마을 안길의 끝은 형상은 더욱 극명하게 보여진다.



[그림 3-44]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마을 안길과 담장1

이러한 담장의 배열방법은 종래의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근대적 변모양상을 나타낸다. 남평문씨본리세거지가 지어지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외래의 주문화가 유입되고 유리, 적벽돌, 철, 시멘트 등 새로운 건축 재료가 사용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마을의 주거 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루 밑 고맥이나 굴뚝, 장독대

등을 축조하는데 적벽돌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것이 그 예이다.⁸⁰⁾ 뿐만 아니라 마을의 담장의 형태에서도 종래의 한옥마을 담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문의 위치는 골목의 방향과 직교한 대문과 골목의 방향에 순응한 대문의 모습의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남평문씨본리세거지에서는 대문과 안길의 관계를 통해 종가의 위계를 나타낸다.

[그림 3-45]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마을 안길과 담장2

80) op. cit. 김일진(1997), p3

□ 진입부 돌담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의 초입에는 마을의 입구를 알려주는 조산무더기가 있다. 조산무더기는 주먹크기의 돌에서부터 호박만한 크기의 돌을 삼각뿔의 형태로 쌓아서 만든 조산 유적이다. 조산은 풍수지리상으로 공허하고 취약한 지점을 보충·보강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만들거나 산천의 비보적인 역할과 마을 수호를 기원하는 기도처로 이용하기 위해 조성하였다.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의 조산무더기는 조산 중앙에 장대석을 세워놓은 것으로 보아 신과의 교감을 위한 상징물로 보인다. 조산 너머로는 비슬산이 우뚝 서 있다.

조산을 지나 마을에 이르면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과 함께 연식이 들어가고 있는 느티나무는 마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조산무더기는 마을의 초입에 위치하며, 직경 510cm, 높이 270cm의 규모로 삼각뿔의 형상을 가진다.

[그림 3-46] 조산무더기

② 자연과 공존하는 한옥마을

□ 가옥과 방풍림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마을 곳곳에 심어진 연식이 오래된 소나무, 회화나무, 은행나무와 담 너머로 볼 수 있는 매화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등이 잘 어울려 마을의 풍치를 한결 드높이고 있다.⁸¹⁾ 특히, 담장 사이로 피어난 능소화가 절경이다.⁸²⁾ 능소화는 떨어진 모습도 아름답다. 이전에는 능소화를 양반집 마당에서만 심을 수 있어 양반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로보아 남평문씨의 위세와 경제력을 알 만 하다. 지금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능소화를 촬영하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마을을 찾는다.

수목은 마을의 풍치를 돋우기 위해 심기도 하지만 비워진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심기도 하였는데, 문유만·문영갑·문시갑 가옥 옆에는 마을의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을 막기 위한 방풍림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3-47] 문근만 가옥 토담과 방풍림

81) 한옥문화원(2004), 「한옥문화: 남평문씨의 잘생긴 마을」, 한옥문화원, p.13

82) 능소화(凌霄花)는 하늘을 업신여기면서도 마구 기어 올라가며 꽃을 피운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종근(2010), 「한국의 옛집과 꽃담」, 생각의 나무, p.262

□ 수봉정사와 안마당

마을의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수봉정사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수봉정사는 자연과 어우러져 시원하고 계획적으로 시설되었으며, 특히 정원의 꾸밈이 아름답다. 수봉정사는 한말의 유학자 문영박(1880~1931)을 기리기 위해 1936년 세워졌으며 수백당(守白堂)이라고도 불린다. 수봉정사는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을 맞고 문중 뿐 아니라 공사간의 모임을 개최할 때 사용되었다.

수봉정사의 산형대문을 들어서면 앞마당 중앙에 흙을 돋워 심은 이미 거목이 된 소나무들이 우뚝 서 있는데, 소나무 아래 거북이가 새겨진 작은 바위가 마당의 운치를 더한다.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수봉정사의 지붕의 선은 후면 뒷산의 형상과 닮아 있어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담장 안쪽으로 전나무, 모과나무, 백일홍나무, 산유수, 매화나무 등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며 정사와 조화를 이룬다. 안마당의 자연석으로 만든 보도를 밟고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수봉정사에 이르게 되는데, 보도는 소나무 봉우리를 지나 수봉정사에 이를 수 있도록 꺾은 모양으로 시설되었다. 이처럼 수봉정사는 수목의 종류 및 위치, 건물의 형상, 보도, 바위 하나 까지 자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세밀하게 계획되었다.



[그림 3-48] 수봉정사 안마당

□ 광거당과 노송

수봉정사의 담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나가면 마을 정남향에 자리한 광거당이 있다. 광거당은 1873년 후은(後隱) 문봉성(文鳳成) 부자가 지은 건물로서 문중의 자제들이 학문과 교양을 쌓던 수양 장소였다. 광거당은 만권의 전적을 소장하여 국내 많은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⁸³⁾

광거당으로 진입하면 건물 동편 담장 안팎으로 지붕보다 높이 솟은 굽직한 소나무들과 이끼가 들어찬 안마당이 광거당의 분위기를 이끈다. 누마루 바깥에 추사의 글씨로 ‘壽石老苔池館’(수석노태지관)이란 편액이 걸려있는데, 이는 ‘수석과 묵은 이끼와 못이 있는 집’이란 뜻으로 광거당 안마당의 모습을 가리킨다. 이전에는 광거당 동편에 대나무가 심어져 쪽마루에서 밖을 바라보면 마치 숲속의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으나, 지금은 유지관리상의 이유로 철거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광거당의 노송들은 광거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



[그림 3-49] 광거당과 노송

83) op. cit. 김은정 외(2012), pp.248~249

③ 상류주택의 삶을 담은 채의 구성

□ 안길에서의 진입방식 및 채의 구성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의 가옥은 대부분 남향 또는 남서향을 취하고 있다. 가옥의 대문간은 골목과 직교하거나 순응하여 나타나며 대부분 짧은 고살 끝에 위치한다. 대문간의 영역은 협소하게 나타나며, 사랑채 측면에 자리하여 주출입의 기능을 갖는다.⁸⁴⁾ 사랑채와 연결하여 시설된 대문간은 안채 출입을 위한 중문의 기능도 갖으며, 대문간 옆에 사랑채 출입을 위한 일각문이 있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행랑채에 부속하여 대문간이 설치되는 전통 방식의 주거에서는 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행랑채는 마구간, 하인들이 기거하는 방, 광 등으로 구성되는데, 마을이 형성되던 시기에는 교통수단이 변화되어 말을 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실들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0] 문희목 가옥 대문간 및 대문간 옆 사랑채 출입을 위한 일각문

84) 대문간은 사랑채 측면에 연결하여 설치된 경우와 사랑채와 다소 떨어져 설치된 것이 있다.

□ 마당과 채

마을 내 가옥은 대부분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존재하며, 아랫채가 부속되어 있는 가옥도 나타난다. 조선 전기 상류주택에서 사랑채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안채에 부속되어 있었으나, 조선 중기에 유교를 국교로 수용하면서 사랑채의 모습이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가장으로서 남성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랑채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남성과 여성의 거주 공간 분리를 위해 안채와 사랑채가 별도로 분리되거나 안채에서 돌출되어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⁸⁵⁾ 가옥에서 안채는 북쪽에 치우쳐 배치되고 사랑채는 남쪽에 넓은 사랑마당을 두고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 구성방식은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보편적인 마당구성으로, 서민주거에서는 사랑마당과 안마당의 구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채에서는 위계에 따른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구 구성보다는 평면 구성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 사랑채는 큰사랑방, 작은사랑방, 사랑대청, 도장방 등으로 기능에 따라 공간이 분화되며, 앞뒤 두줄로 배열된 사랑채도 나타난다. 사랑채 전면에는 마루가 놓여 사랑방 출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후면에는 안채로의 동선 연결을 위한 툇마루가 발달하였다. 사랑채는 남성의 생활 뿐 아니라 제사, 학문, 접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안채는 모두 ‘—’자 형으로 부엌-큰방(안방)-마루(대청)-작은방(건넌방)의 순으로 구성되는 남부지방형 민가의 평면형식을 따르고 있다.⁸⁶⁾ 안채 전후와 측면에는 툇마루나 쪽마루가 시설되어 방 사이를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수장공간 및 가사공간으로 활용된다. 안채는 대개 대청을 중앙에 두고 안방과 건넌방(작은방)이 좌우로 배치되고 안방의 측면에 고방이 위치한다. 고방은 전면 또는 측면에 쪽마루를 시설하여 영역을 확장시켰다. 일부 가옥은 편의와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대청에 유리문을 시설하였다. 이로 보아 가옥에서 마루는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랫채가 있는 집은 문시갑, 문대갑, 문승기, 문희지, 문보갑 가옥이다. 종가인 문정기 가옥에는 과거에 아랫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되고 그 터만 남아있다. 아랫채는 대부분 안마당을 바라보며 안채와는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고 특히 안채 고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⁸⁷⁾

85) 주자의 가례서가 널리 보급되어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례가 중시되어 제사를 담당하는 남성, 특히 종손이나 장자의 가족 내 지위가 높아졌다. 제사를 주관하는 종손에게 재산상속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었으며 그가 사는 종가는 마을의 실제적인 구심점이 되었다. 김동욱(2003),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pp.234~236

86) op. cit. 김일진(1997), p.4

87) op. cit. 김일진(1997),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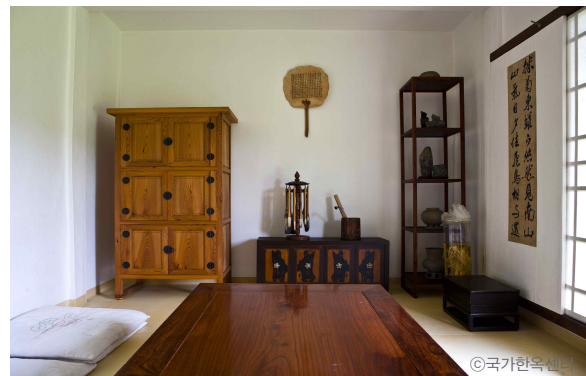


[그림 3-51] 문시갑 가옥 안채와 사랑채의 고즈넉한 풍경

가옥의 지붕은 대부분 팔작지붕으로, 지붕 위 양 옆에 박공으로 '人'자꼴을 이룬 합각 부분을 장식하여 건물의 격을 높였다. 가옥 내 벽 상단에는 겨울철 환기에 유리하도록 문처럼 만든 교창형 구조물을 시설하였는데 선조들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에서는 방 내부의 꾸밈도 멋스럽다.



[그림 3-52]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가옥 전경 및 문대갑가옥 합각



[그림 3-53] 문희목 가옥의 문처럼 만든 교창형 구조물(좌) 사랑채 내부(우)

④ 공공공간의 경관

□ 정자 : 수봉정사

수봉정사로 들어오는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수봉정사 대문의 문빗장은 두 마리 거북이 형상으로, 머리를 들어 빼었다가 내려놓으면 빗장이 빠지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⁸⁸⁾ 거북모양의 빗장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생동감을 준다. 마을에서 거북 모양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광거당 대문의 빗장둔테에서도 거북을 볼 수 있다.



[그림 3-54] 수봉정사 거북모양의 빗장

대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수봉정사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ㄱ’ 자형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건물 전면에 마루를 설치하고 뒤쪽으로 5칸의 방과 1칸의 누마루를 두었다. 건물 전면 상단에는 위창 오세창의 수봉정사(壽峰精舍), 후면 상단에는 유창환의 수백당(守白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문영박의 호(수봉)와 별호(수백당)를 딴 것이다. 정사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로 된 편액 ‘쾌활(快活)’도 보인다.

수봉정사는 탁 트인 정원이 시원하고 계획적이다. 수봉정사의 기둥은 원주로 되어 있어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개방감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이는 전통한옥 양식과 구별된다. 조선시대에는 궁궐과 관청, 사찰 건물에만 원주를 사용할 수 있었고 민가에는 사각기둥을 세우는 것이 관례였다. 이로부터 수봉정사가 지어지던 시기는 관행되어 내려오던 규제 없이 도편수와 건축주의 의도대로 자유로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⁹⁾ 수봉정사의 빗장둔테 치목 방식에서도 이러한 시대성을 읽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새김질 칼로는 작은 무늬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봉정사 동쪽 끝 칸에 위치한 내루는 머름대, 문지방, 건넌방과의 관계가 치밀하게 계획되어 정돈되어 있다. 수봉정사의 앞 퇴는 일직선으로 단순한 구조이나 뒤퇴에는 안방 밖과 내루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내루와 안방 뒤편의 난간 두른 뒷마루는 건넌방과 대청의 뒤퇴에 비하여 그 높이가 한단 높은데, 출입의 편의를 위해 건넌방과 연결된 내루 벽 쪽에 출입문을 내고 문지방을 낮췄다.

88) op. cit. 한옥문화원(2004), p.16

89) 한국문화유산답사회(1997), “답사여행의 길잡이 8, 팔공산 자락”, “남평문씨세거지”,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수봉정사에 사용된 목재는 하나 같이 정선되었으며 우리나라 나무의 결이나 문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가운데 가장 육중한 대들보는 경남의 함양 안에서 온 것이며, 정면의 일곱 기둥은 모두 가창 정대의 「한뜸」이란 곳에서 나온 가죽나무이다.⁹⁰⁾ 기둥과 대들보는 활엽수를 사용하였다. 수봉정사에 쓰인 부재들은 굽직하고 큼직하여 건물 전체를 비범하게 만든다.

수봉정사는 앞과 뒤에 문이 있는데 뒤편의 문을 나서면 주거지 골목으로 이어진다. 종래에 한옥에서는 후면으로는 출입문을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봉정사가 지어졌던 시기는 개화기 근대로 관례보다 건축주의 의도가 더 중요시 되어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후면에 문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문은 일각문 구조로 담장 높이를 고려하여 세련되게 지어졌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수봉정사의 지붕 선이 뒷산의 산형과 닮아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준다.

[그림 3-55] 수봉정사 전면

90) op. cit. 한옥문화원(2004), p.35

91) op. cit. 한옥문화원(2004), p.27



도목수는 이영순이고 대문채는 황사익의 솜씨인데 두 사람 다 이름난 목수였다.

[그림 3-56] 위창 오세창 선생 글씨의 편액, 대들보, 종보, 마루대공의 구조



대청에는 고주가 없다. 수봉정사에서는 대청 중앙의 고주를 빼는 대신에 안방과 건넌방 고주로부터 든든한 별창방과 수장 두께에 상당한 높이로 다듬은 굵은 각재로 장혀를 담아 대들보 밑을 받쳐주면서 건너가게 하였다.⁹¹⁾

[그림 3-57] 수봉정사 앞 퇴 전경

□ 재실 : 광거당

광거당은 용호재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재실로, 만권의 책을 비치한 ‘만권당(萬卷堂)’이 설치되어 수많은 문인과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한 광거당으로 향하다 보면 행랑채 바깥 화방벽의 독특한 구조를 먼저 만나게 된다.⁹²⁾ 화방벽은 화재와 사고에 의한 노출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데, 대개 전면에 창과 문을 내고 나머지 삼면을 전벽돌로 쌓는다. 화방벽은 외부를 장식하는 효과도 있는데, 광거당 화방벽은 토석을 쌓은 후 흙에 깨진 기왓장을 넣어 키를 높임으로써 건물의 격조를 높였다. 화방벽에 이어진 행랑채의 굴뚝들도 재미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광거당의 화방벽을 즐기다보면 둥그스름하게 꺾여 굽이치는 담장이 나타나는데 담장 옆으로는 지붕보다 높은 소나무들이 즐비해있어 리듬감을 연출한다. 담장을 걷다보면 소나무 사이로 광거당의 모습이 아른거리며 드리운다.



[그림 3-58] 광거당 화방벽 및 굴뚝



[그림 3-59] 광거당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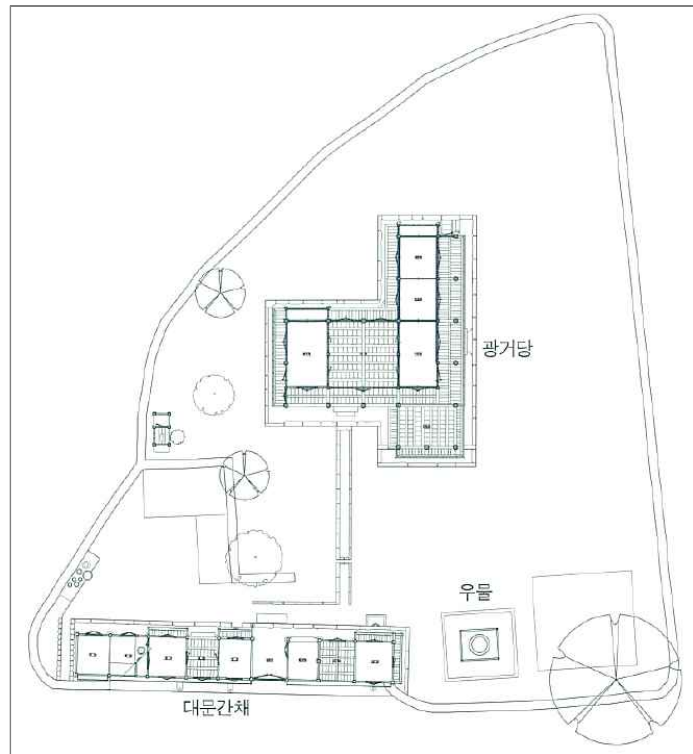
광거당 대문 앞에 다다르면 내외담이 눈길을 가로막는다. 내외담은 행랑채와 광거당을 분리해주는데, 이로 인해 안채의 품격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내외담은 여름에는 공기의 흐름을 활발하게 하여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역할도 한다.⁹³⁾ 내외담은 중심부 하단에 기왓장으로 형성한 꽃잎에 흙을 가득 채워 꽃의 형상으로 치장하였다. 이로 보아 담장의 모습 하나 하나까지 미학의 가치를 실현시키려한 남평문씨의 품위를 알 수 있다.

92) 전통건축에서 전벽돌 등을 쌓아 방화 성능을 높인 형식의 벽을 화방벽(火防壁)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법은 중국의 건축물에서는 일찍부터 사용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사묘(祠廟) 건축물에서만 일부 볼 수 있었다가 조선후기로 오면 도시 내의 규모 있는 가옥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93) 이종근(2010), 「한국의 옛집과 꽃담」,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생각의 나무, p.267

내외담을 지나면 후원과 광거당의 전면에 다다른다. 후원에는 마당을 딛고 다니도록 화강석을 다듬은 돌로 줄을 세우고 그 안을 채운 보도를 만들었다. 광거당은 정면 4칸, 측면 5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며 ‘ㄱ’ 자형 형태를 하고 있다. 전면 좌측 3칸에는 전퇴⁹⁴⁾가 설치되고 광거당 동편 전체는 내루로 계획되었는데, 내루 측면에 지붕보다 키가 큰 소나무가 심어져 청량한 느낌을 준다. 광거당 전면의 우측 1칸 앞으로는 누마루가 돌출되어 있는데 누마루는 뒷마루보다 1단 높다. 이로 인해 내루 서편으로는 앞 퇴 마루에서 내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난간을 걸었는데, 앞 퇴와 쪽마루, 내루의 머름대가 정밀하게 계획되어 조화를 이룬다. 광거당 후면에는 방 뒤쪽에 뒤퇴를 두어 더욱 넓은 공간을 연출하고, 뒷마루 끝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뒷마루에는 층계를 조성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배려하였다.

광거당 내에는 심재 조공섭이 지은 당의 기문과 석촌 윤용구가 쓴 ‘광거당(廣居堂)’, 추사 김정희의 ‘수석노태지관(壽石老苔池館)’, 근세 중국의 명사 장건의 ‘고산경행루(高山景行樓)’⁹⁵⁾ 등의 편액과 주련이 걸려 있어 과거 토론의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광거당의 기품을 알 수 있다. 광거당은 엄선된 목재만을 사용하여 건축되었는데, 광거당에 사용된 석재, 기단석과 초석 등은 인흥사에서 나온 것이며 주요 목재는 춘양목으로 낙동강을 통해 운반되었다고 한다.⁹⁶⁾



[그림 3-60] 광거당 배치도
(출처: 인흥록)

94) ‘전퇴’란 전돌 바닥을 뜻한다.

95) ‘고산경행루(高山景行樓)’는 이 마루에 앉아 높은 산의 웅지와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96) 인흥록



[그림 3-61] 광거당 내외담(꽃담)



[그림 3-62] 광거당 전경



내루의 한 면에 난간 대신 쪽마루를 설치하여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63] 광거당 쪽마루와 내루의 머름대



내루 후면의 방 3칸이 연속되어 있다.

[그림 3-64] 광거당 방의 분합

□ 문고 : 인수문고

수봉정사의 동쪽에 만권서적을 보관하고 있는 인수문고가 위치하고 있다. 인수문고는 1910년에 설립된 문중문고(門中文庫)로서, 남평문씨가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인수문고가 설립되던 시기는 나라가 망하던 시기로 일제치하의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민족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일이라 하여 서당에서 받는 교육이 여전히 중시되었다.

과거에는 광거당과 수백당에 서적을 보관하였으나 6.25 때 다소의 손실이 있어 인수문고를 지어 책을 옮겨 수장하였다. 인수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 종류는 약 8,500여권으로 그 수가 방대하여 만권당(萬卷堂)으로 불리기도 한다.⁹⁷⁾ 최근에 출판된 책을 소장하기 위해 인수문고 가까운 자리에 중곡문고(中谷書庫)라는 문고가 추가되었다.

인수문고 마당에 조성된 키가 낮은 수목과 푸르른 잔디는 서고와 함께 정경한 느낌을 준다.



[그림 3-65] 인수문고 전경(위) 및 내부(아래)

97) 보통 고서의 경우에는 1책이 2-3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약 2만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수문고는 보통 만권당(萬卷堂)으로 불리기도 한다.

제4장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발굴하여 기록·홍보하고 전통 한옥마을 경관에 대한 조명과 이해를 통해 선조들의 경관설계논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마을 세 곳을 대상으로, 마을의 역사 및 현황, 풍수지리학적 입지, 주거 특징 등 기본이력사항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한옥마을의 우수 경관 계획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한옥마을은 원형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 가운데 비교적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선정하여, 전통한옥마을 경관의 우수함과 보존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옥마을 사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적으로 사진정보가 많이 확보된 마을을 선별하였으며, 한옥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관련문헌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옥마을을 후보지로 정하였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고성 왕곡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네 개의 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경관에 대한 시각자료는 사진작가가 보유한 자료의 구득을 통해 우수한 자료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마을의 우수경관을 발굴·기록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촬영하여 자료화하였기 때문에 현재 담장 등의 경관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성주 한개

마을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고성 왕곡마을, 영주 무섬마을,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세 개의 마을을 최종 선정하였다. 세 개의 마을은 강을 끼고 있거나, 여러 개의 산속에 고립되어 있거나, 격자형의 근대적 공간구조를 갖고 있는 등 입지와 배치, 마을의 공간구조, 규모, 그리고 한옥 자체의 구성 등에서 각기 특색을 갖고 있어 우리 전통한옥마을의 다양한 경관과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세 개의 한옥마을별 우수경관 계획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성 왕곡마을



[그림 4-1] 왕곡마을 자연경관



[그림 4-2] 왕곡마을 지붕경관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왕곡마을은 양근 함씨(강릉 함씨라고도 함)와 강릉 최씨 두 성씨의 주도하에 대대로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해온 농촌마을이다. 그 역사는 14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 현재 함씨들은 마을에서 18대째, 600년 이상 살고 있다.

왕곡마을은 마을을 두르는 산들로 겹겹의 영역이 형성되고 그 안에 거주지가 안전하게 숨겨진 환경조건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6·25 전쟁 시 마을과 인접한 곳에서 격전의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피해가 작았던 것 역시 마을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함포 사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풍수지리적 입지는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왕곡마을은 이처럼 자연재해와 근현대기의 개발에서 비껴남으로써 삶의 지속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마을이 되었다.

왕곡마을 집들의 특색은 집 앞 마당에 담을 두르지 않고 대문도 없다는 점,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마구(외양간)가 서로 별도의 채로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몸채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채 앞에 뒗마루가 없고 문이 기단 위로 높이 설치되어서 그리로 드나들지 않으며, 정지(부엌)를 통해 다른 방과 집밖을 연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후를 반영한 주거형태로부터 비롯된다. 왕곡마을의 집들은 모두 겹집으로, 외피면적이 작아 열손실이 적다. 대부분의 집들은 일자형 본체에 마구를 직각방향으로 덧붙인 ㄱ자형 집인데, 돌출된 마구 부분은 북서쪽, 곧 집 앞에서 보아 왼쪽에 있는 가옥이 많다. 이런 형태는 겨울철 태양열을 더 많이 획득하고 북서풍을 차단할 수 있어 에너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돌출 부분을 오른쪽에 둔 집들은 대개 안길의 남서쪽에 있는데, 돌출 부분으로 안길 쪽을 막아 앞마당을 좀 더 아늑하게 만들었다. 앞마당이 담과 대문이 없어 개방적인데 반해 본채 후면의 뒗마당은 담이 높이 둘러 폐쇄적인 마당을 이루고 있는 점 역시 특색 있다. 뒗마당을 집에서 가장 내밀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높은 뒗담은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주고, 바깥의 마을길로 뒗마당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왕곡마을의 가옥들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굴뚝이다. 왕곡마을의 굴뚝 디자인은 모두 조금씩 다르고 각기 특색이 있다. 토담 쌓는 방식으로 탑처럼 만들어진 굴뚝들의 크기와 중량감은 웬만한 봉수대와 맞먹는다. 굴뚝을 높이 설치한 것은 마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굴뚝으로 바람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굴뚝은 상징성과 조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역을 나누는 공간구성 요소의 역할도 한다.

□ 영주 무섬마을



[그림 4-3] 무섬마을 자연경관



[그림 4-4] 무섬마을 마을경관

무섬마을은 다른 전통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무섬마을은 동쪽을 제외한 삼면이 넓은 강과 접해있고 강이 마을을 휘감아 돌아 마치물 위에 떠 있는 섬의 형상을 이룬다. 강과 접해있는 대지는 평지로 조성되어 있고 동쪽 뒤편으로는 자연구릉지가 발달하여 마을은 풍수지리학적 측면에서 행주형국을 이룬다. 이러한 자연환경 및 입지조건으로 인해 마을에서 주거지는 서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한다. 현재는 수도교라는 현대식 다리가 놓여 있으나 과거에는 냇가에 나무기둥을 박은 외나무다리가 육지와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외나무다리는 고향에 대한 정취와 애환 어린 추억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무섬마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마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무섬마을 가옥은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하던 까치구멍집이 평지에 적응하면서 변모하여온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마루를 짧게 하고 좌우 끝의 짚이 안으로 들어가 까치가 드나들만한 구멍을 낸 까치구멍집은 폐쇄적인 겹집에서 나타나는 양식으로, 열손실을 줄이고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 가옥 안에 모든 생활공간이 집중되며 특히, 마구와 부엌이 가옥 안에 배치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까치구멍집과는 달리 무섬마을의 까치구멍집은 가옥에 텃마루를 두어 시원한 개방감을 주거나 마구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사랑방이 자리하는 등 산간지역의 까치구멍집이 평지의 개방적인 초가와 만나 변형된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무섬마을의 가옥에는 격식 있는 사대부가옥의 전형적인 공간구조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섬마을의 가옥은 외부에서 사랑채와 안채로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고 사랑채가 부속실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분리되거나 가옥에서 돌출되어 있으며, 사랑방은 조망에 유리한 배치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이 무섬마을의 가옥에는 유교적 격식이 반영된 공간구조가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은 무섬마을의 입향조인 박수(1641~1699)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지은 만죽재 고택과 고종 의금부도사를 지낸 김낙풍 선생(1825~1900)이 지은 해우당 고택에 잘 반영되어 있다.

□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인흥마을이라고도 불리는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남평문씨의 상류층 주거지로 일제강점기인 1910~1940년경, 9채의 살림집과 재실(광거당), 정사(수봉정사), 문고(인수문고) 등이 건립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역

사는 19세기 초반 문익점의 18대 손으로 올라가 1834년 지금의 광거당 자리에 용호재를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문씨일가의 상류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규모가 작은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남평문씨본리세거지로 불리운다.



[그림 4-5]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지붕경관



[그림 4-6] 남평문씨본리세거지 가로경관

남평문씨본리세거지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마을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전법에 따라 집터가 구획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실, 가옥, 마을안길 등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처음부터 계획된 구역에 따라 가옥들이 자리하였다.

격자형 공간구조로 인해 마을의 진입로와 광거당을 향한 길을 제외한 마을 안길은 모두 곧은 형상을 하고 있다. 마을의 주거는 서로 연접하여 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담장은 굴곡이 거의 없는 직선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높다. 이러한 마을의 담장의 모습은 낮은 토담이나 자연스러운 골목길을 따라 곡선의 형상을 가지는 전통한옥마을의 담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마을의 담장은 일반적인 전통한옥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정겨움이 덜하고 비교적 높은 담장으로 폐쇄적인 안길이 마치 현대 주거지 공간과도 흡사한 공간구조를 갖고 있지만, 자연재료인 토담과 전통한옥의 지붕선이 이루어내는 골목길은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운치 있고 독특한 가로경관을 연출한다.

마을 내 가옥의 구성은 상류주택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많은 가옥들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아 채의 구성을 모두 파악하지는 쉽지 않으나, 대부분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존재하며 아래채가 부속되어 있는 가옥도 있다. 사랑채는 위계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있으며, 앞뒤 두 줄로 배열되기도 한다. 대체로 안채는 북쪽에 치우쳐 배치되고 사랑채는 남쪽에 넓은 사랑마당을 두고 자리함으로써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보편적

인 마당구성을 하고 있다.

한편 앞의 두 마을과 달리 남평문씨본리세거지에는 마을의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는 수봉정사(수백당)와 광거당, 인수문고가 자리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수봉정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로 정원의 꾸밈이 아름다워 손님을 맞고 문중 뿐 아니라 일족의 모임을 개최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광거당은 문중의 자제들이 학문과 교양을 쌓던 수양장소로, 용호재를 헐고 옛 터를 살려 정남향으로 지은 재실이다. 인수문고는 현재 규장각 도서를 포함하여 약 8,500여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어 만권당(萬卷堂)으로도 불리는 문중문고이다. 인수문고는 보유하고 있는 서적의 양과 질 그 자체로도 매우 귀중한 유산이며, 수봉정사와 광거당은 건물 본채와 담장, 화방벽 등 조형적인 측면이 매우 아름다우며 안마당과 주변의 노송 등 자연과의 조화도 뛰어나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남평문씨본리세거지는 마을의 조성시기와 규모, 배치방법 등에서 기존의 전통마을과는 차별화되는 특징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에 적용된 근대적 변화양상을 잘 보여준다.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한옥은 근래에 친환경건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한옥마을은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공간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에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특성을 연구하고, 한옥마을이 가지는 특성을 현대의 주거지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옥마을의 역사성과 공간설계논리를 고려하지 않은 마을복원사업으로 인해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옛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한옥마을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관광지화되어 그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안동 하회마을이 그러했고, 최근에는 북촌한옥마을과 전주한옥마을이 관광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식의 박제된 공간이 아닌, 현재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생활공간으로서 한옥마을의 변화는 불가피한 일이면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 변화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보다는 현재 거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생활에 편리함과 거주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우리 한옥마을이 가지는 우수한 경관적 특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올바른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마을의 원형경관을 파악하고 마을의 전통성과 향토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마을 경관 형성의 주요 거점이 되는 전통가옥뿐만 아니라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한옥마을의 경관영역으로 확대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통한옥마을의 우수한 경관적 가치와 그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저변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름다운 전통한옥마을의 경관을 자연경관까지 확대하여 현 시점에서 한옥마을 경관의 특성을 발굴·기록하고, 경관설계논리를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전통한옥마을의 우수한 경관과 가치를 토대로 올바른 복원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앞으로 변화할 한옥마을의 경관을 기록하고 우수한 경관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전통한옥마을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감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통한옥마을 가운데 3곳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성주 한개마을의 경우, 2014년 현재 담장개선사업 등 대대적인 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개마을을 포함한 나머지 전통한옥마을을 대상으로도 같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경관의 변화를 관리·기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 전통한옥마을,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도심 속 한옥마을, 더 나아가 최근에 조성한 신규한옥마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마을의 원형경관 및 우수한 경관을 발굴·기록하고 설계논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한옥마을 조성 및 경관관리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과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경관자료 구득에 있어 예산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사계절의 다양한 우수한 경관자료를 구득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전통한옥마을의 우수한 경관을 발굴·기록·분석한 첫 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다양한 유형의 한옥마을 경관관리 정책과 신규한옥마을 조성정책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전통한옥마을의 우수한 경관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표 4-1]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 단계별 연구방향

단계	세부내용	대상 마을 예
1단계	<p>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된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문화재보호법 기반)'을 선정하여 우수경관 소개 - 중요민속문화재 한옥마을 중 최근에 선정된 한옥마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마을 선정 	<p>아산 외암마을 제주 성읍민속마을 성주한개마을</p>
↓		
2단계	<p>전통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옛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지켜낸 가옥, 교육기관, 누정, 옛 담장 등이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마을을 선정하여 우수경관 소개 	<p>안동 가일마을 보성 강골마을 나주 도래마을</p>
↓		
3단계	<p>도심형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근대기 도시화과정에서 조성된 오래된 주거지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한옥마을을 선정하여 우수경관 소개 	<p>북촌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 서촌/성북동 한옥밀집주거지</p>
↓		
4단계	<p>신규조성형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공법 등을 활용하여 최근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규한옥마을을 선정하여 우수경관 소개 	<p>은평뉴타운 한옥마을 묘골 아름마을</p>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동욱(2003),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 임승빈(1994),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종근(2010), 「한국의 옛집과 꽃담」, 생각의 나무
- 신광철(2010), 「마음의 고향... 한옥마을」, 한문화사
- 한옥문화원(2004), 「한옥문화, 남평문씨의 잘생긴 아들」, 한옥문화원
- 한필원(2004),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2」, 북로드

2. 학술지 및 전문지

- 김선호 외(2011), 공간구문론을 통한 가로보행특성과 인터넷사진의 상관관계 연구 - 서울시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12(4)
- 김수연(2013), 역사문화경관의 시지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경복궁을 중심으로, 경희대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12), 근대시기 씨족마을로서의 남평문씨본리세거지에 관한 건축적 연구,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일진(1997),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마을과 주거의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박정현 외(2011), 조망경관계획에서 조망점 설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13 (1)
- 방재성 외(2008), 조망점의 선정기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36(1)
- 신정숙 외(2014), 농촌경관계획 대상요소의 도출 및 분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12, n.4
- 신치후(2004), 영주무섬마을 양반주택의 건축적 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신치후(2003), 경북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주택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 오진숙(2011), 서울 서촌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가치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석사학위논문
- 윤정식(2009), 조망점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 비교 분석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 조상규, 성은영(2012), 장소중심의 공간계획을 위한 인터넷 사진정보 활용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정건채, 구재환(2007), 마을의 경관구조 및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9(1)
- 정복임(2011),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구 읍성 내 북성로 가로구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석사학위논문
- 정태일 외(2003), 우리나라 경관관련 법, 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9(10)
- 최영철 외(2012),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강원도 고성군
- 최재용 외(2004),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승호(2003), 농촌마을 경관계획에 있어 경관정보의 수집과 가시화기법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i Y et al(2009), Landmark Classification in large-scale Image Collections, IEE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dmark Classification in Large-scale Image Collections

3. 웹페이지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한국관광공사」, <http://gallery.visitkorea.or.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 「영주 무섬마을」, <http://www.무섬마을.co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 Case Study on the Landscape Design in Hanok-Village -Wanggok Village, Moosum Village, Village of Nampyeong Mun Clan

Sim, Kyung-Mi
Kim, Kot Song I

Chapter 1. Introduction

Hanok turns itself into an environment-friendly building in recent years. Hanok village also provides spatial environment which is valuable in harmonizing buildings with their natural surroundings. For these reasons, research efforts on environmental features of Hanok village and application of the environmental features to contemporary residence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As a part of these efforts, this study discov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anok village landscape at the moment and the logic of the landscape design of ancestors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Hanok village landscape.

Three Hanok villages (Wanggok village, Moosum village, and a village of Nampyeong Mun Clan)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important folklore resources are selected as research cases for landscape analysis. The case areas are selected because they preserve the prototype of Hanok village and excellent landscape.

Chapter 2. Selection of Hanok Villages and Research Processes

In the selection process, relatively unknown Hanok village is preferr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inform people about the beauty and excellence of traditional Hanok village landscape. Big data based on web-page photography is analyzed and literature review is conducted. This study also collects visual

materials that represent Hanok village landscape to analyze the elements in landscape planning of Hanok village. For qualified and valid visual analysis, among photographs that taken b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as much as possible the latest visual materials are selected and analyzed rather than focusing on the old form. A researcher also takes additional photographs to discover and analyze excellent landscape at the moment.

Chapter 3. Excellent Hanok Village Landscape Cases

Basic history of three villages (Wanggok village, Moosum village, and a village of Nampeong Mun Clan) are investigated such as town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Feng Shui geographical location, and features of the house. Using visual materials with the basic history, this study analyzed the elements in landscape planning of those Hanok villages.

□ Wanggok Village in Goseong-gun

Wanggok village is located in the mountain that forms residential area and offers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o which residence is hidden safely. This Feng Shui geographical loca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at enable Wanggok village to be away from natural disasters and modern development.

Houses in Wanggok village have neither fences nor gates in the garden. Anbang(i.e., the women' s inner quarters), Sarangbang(i.e., the living space of male head of a household), and Oeyanggan(i.e., barn) of the house are neither independent nor separated, rather merged into a main house. Houses in Wanggok village do not have toenmaru(i.e, narrow ummul maru running along the outside of a room). Doors are installed on stylobate(i.e., stone foundation) at over height, making residents come in and out not through the door but through jeongji(i.e., the kitchen).

These features of the house have been caused by a cold mountainous

climate. Double-row layering, (ㄱ) shape, and protruding barn are examples of architectural effort to have much sunlight and less heat loss as much as possible. The over height chimney of the house in Wanggok village is another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effort to prevent backward flow in the environment that has a lot of the wind.

□ Moosum Village in Yeongju-si

Natural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condition of Moosum village are so different from other traditional villages. All plains of Moosum village are used not for farmland but for residence. Most house buildings face the river and are surrounded by mountains. A single log bridge is the only connection of Moosum village to the outside world.

Most landscape features and housing characters of Moosum village are influenced by the Confucianism culture. Anbang and Sarangbang of the house are separated to provide better view with Sarangbang where the nobleman use in general. Architectural plan of the house is determined by family size and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In cases of affluent and big-size families, a type of (□) shape housing is frequently observed. Most house buildings have magpie holes and double-row layering due to the continental climate.

□ A Village of Nampeon Mun Clan in Daegu Metropolitan City

Residential areas in a village of Nampeong Mun Clan are divided by a well-field system. This field division system is uncommonly observed in other traditional villages. Due to this division system, landscapes of this village represent an orderly grid form. Houses in this village are all concatenated with straight and high fences.

Architectural plan of the house in this village reflects the life style of upper-class housing. Anbang and Sarangbang of most houses are separated. Sarangbang is usually located on the south facing spacious garden, compared to

Anbang that is usually located on the north. A village of Nampeon Mun Clan also has public spaces such as Subongjeongsa(a gathering place), Gwanggeodang(the educational place), and Insumungo(a library) that provide a characteristic landscape with this village.

Chapter 4. Summary and Contribution

This study is worth in providing foundational materials for restoring and managing traditional Hanok villages based on these villages' excellent landscape and its value. In order to provide the foundational materials, this study has expanded the landscape of traditional Hanok village to natural landscape and, then, features of the landscape have been recorded and analyzed.

Even though this study focused on three exemplary villages, other traditional villages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important folklore resources including Oeam village need to be studied for recording and managing continuous changes in their landscapes. These recording and managing tasks should be applied to a traditional Hanok village which has not been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but locates excellent cultural assets in it. Bukchon Hanok village and other Hanok villages in urbanized areas are not exceptional in those recording and managing tasks.

Key words : Hanok village, Townscape, Wanngok village in Goseong, Moosum village in Yeongju, and a village of Nampeong Mun Clan in Daegu

부록1. 경관 유형별 한옥마을 경관

1. 고성 왕곡마을
2. 영주 무섬마을
3.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1. 고성 왕곡마을

고 성 왕 곡 마 을



1,2. 왕곡마을 전경

※ 본 보고서에 사용된 김철현 작가의 사진자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사용권이 있으며, 일부 사진자료는 연구진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것이다.

고성 왕곡 마을



3,4,5.



6,7,8.



9,10,11.



12,13,14.



15,16,17.

3,4,5.왕곡마을 가옥 전경 6.함석원 가옥
11,12.왕곡마을 행주형 자연지형

7.함석영 가옥 8.최방웅 가옥
13,14,15.왕곡마을 안길

9.이수업 가옥 10.함범균 가옥
16.함석영 가옥 17.마을회관

고 성 왕 곡 마 을

18,19,20.



21,22,23.



24,25,26.



27,28,29.



18. 함형찬 가옥 19. 함병식 가옥 20. 함범균 가옥 21. 김유집 가옥 22,23. 김세정 가옥(큰백촌집)
24,25,26. 함석영 가옥 27. 양근 함씨 4세 효자각 28. 전인택 가옥 29. 동학 상징 탑

2. 영주 무섬마을

영 주 무 섬 마 을



1,2,3.



4,5,6.



7,8,9.



10,11,12.



13,14,15

1,2. 무섬마을 자연환경 전경

6.김규진 가옥 지붕경관

9.해우당 고택 안마당

14.해우당 고택 대청

3. 무섬마을 지붕경관 전경

7.김동근 가옥에서 만죽재 길

10.김무병 가옥 안마당

15.해우당 고택 진입부

4.외나무다리 5. 김재진 가옥 지붕경관

8.김뢰진가옥 박원서가옥 담길

11,12.해우당 고택 전경

13.해우당 고택 사랑채

영주 무섬마을

16,17,18.



19,20,21.



22,23,24.



25,26,27.



16.만죽재 고택 사랑채
20.김무병 가옥

17.만죽재 고택 전경
21,22.김위진 가옥
25.김규진 가옥

18.만죽재 고택 안마당
23.김광옥 가옥
26.김규진 가옥 서까래

19.김위진 가옥
24.김정규 가옥
27.김정규 가옥

3.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대 구 남 평 문 씨 본 리 세 거 지



1,2,3.



4,5.



6,7,8.



9,10,11.



12,13,14.

1.남평문씨본리세거지 자연지형
5.문근만 가옥 담장과 방풍림
12.광거당 내외담(꽃담)

2,3.남평문씨본리세거지 지붕경관
6,7.수봉정사 전경
13.광거당 화방벽

4.마을 입구 조산무더기
8,9,10.마을 안길과 토담
14.문화지 가옥 사랑마당

11.광거당 담장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15,16,17.



18,19,20.



21,22,23.



24,25,26.



15,16.문시집 가옥 시림미당 인미당 17,18.문희목 가옥 사랑마당, 안마당 19.광거당 전경
20.광거당 쪽마루와 내루의 머름대 21.광거당 반의 분합 22.수봉정사 전경
23.수봉정사 툇마루 24.광거당 방의 분합 25.수봉정사 앞퇴 전경 26.문희목 가옥 대문

대구 남평문씨본리세거지



27,28,29.



30,31,32.



33,34,35.

27.수봉정사 대들보, 종보, 마루대공의 구조
31.문대갑 가옥 합각

28,29.수봉정사 편액
32,34,35.문시갑 가옥

30.수봉정사 거북모양의 빗장
33.문희목 가옥 대문